인물학,
감당할 수 있겠나?

제천 간디학교 08학번
양념반 후라이드반이 다함께 일고
머리 맞대어 쓰다

드루와 드루와!

들어가기!

<table>
<tr><td>저녁 식사
(5:30~)</td><td></td><td></td><td>6:00~</td><td>채식</td><td>빈그릇 운동</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저녁</td><td>기조 강의
'왜 인문학을
배워야
하는가?'</td><td rowspan="2">종교 토론
(7:00~9:00)</td><td>10대 성문화
발제문 강의+
'충격! 10대
성문화' 다큐
관람
(7:00~8:00)</td><td rowspan="2">'우리들의
목소리' 토론
(7:00~9:00)

※시간이 남으면
'소피아 -
레크리에이션'
진행</td><td rowspan="2">'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대안
방안 제시와
토론
(7:00~9:00)</td><td rowspan="2">'현 정부
국가정책'
토론
(7:00~9:00)</td><td rowspan="2">쉬는 시간
(7:00~9:00)</td><td rowspan="2">'학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7:00~9:00)</td></tr>
<tr><td>참가자들과
만남
(7:00~9:00)</td><td>ice breaking
놀자 놀자
만만세
(9:00~)</td><td>'우리는
섹스를
원하는가?'
토론
(8:00~9:00)</td></tr>
<tr><td colspan="8">잠이나 퍼질러 자거라!!!!!!(11:00~)</td></tr>
</table>

<table>
<tr><th></th><th>19(토)</th><th>20(일)</th><th>21(월)</th><th>22(화)</th><th>23(수)</th><th>24(목)</th><th>25(금)</th><th>26(토)</th></tr>
<tr><td rowspan="2"></td><td colspan="8">기상(8:00~)</td></tr>
<tr><td colspan="8">아침식사(8:30~)</td></tr>
<tr><td rowspan="2">오전</td><td rowspan="2">아점 식사 후
출발
(12:00~)</td><td>'간단한 종교 알기'
(9:30~10:00)</td><td>'내 마음속 미로 찾기'
(9:30~10:15)</td><td rowspan="2">여는 말+영화 '워낭소리' 관람
(9:30~12:30)</td><td rowspan="2">'지구,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 관람
(9:30~11:30)</td><td>'국가란 무엇인가?'
(9:30~11:00)</td><td rowspan="2">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쌤의 강의
(9:30~12:30)</td><td rowspan="2">'학벌사회란 무엇인가' 강의+ '간디학교는 학벌인가?' 토론
(9:30~12:30)</td></tr>
<tr><td>영화 '밀양' 관람
(10:00~12:30)</td><td>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10:30~12:30)</td><td>'광기의 정치혁명, 파시즘'
(11:00~12:30)</td></tr>
<tr><td>점심 식사
(12:30~2:30)</td><td></td><td></td><td>12:30~2:00</td><td>육식의 목소리</td><td>빈그릇 운동
(11:30~1: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오후</td><td>청소&방 배정
(2:30~)</td><td>영화 '밀양' 소감 나누기
(2:30~3:00)</td><td>'인권과 인문학'
(2:00~2:30)</td><td rowspan="2">'생명들의 목소리' 강의+영상
(2:30~5:30)</td><td>환경운동가 안재홍 쌤의 강의
(1:00~2:30)</td><td rowspan="2">〈국가 제도, 알아야 산다.〉 '검열을 검열하라'
(2:30~4:00)</td><td>'백년전쟁' 다큐 관람
(2:30~3:30)</td><td rowspan="2">'학벌과 교육의 파탄'+'교육이 왜 필요한가?' 토론
(2:30~5:30)</td></tr>
<tr><td>참가자 입교
(4:00~)</td><td>'양희창 쌤의 믿거나 말거나' 강의+이야기 나누기
(3:00~5:30)</td><td>'성소수자, 도대체 뭐야?' 강의
(2:30~ 3:00)
'영화로 바라본 성소수자 – 영화 〈로빈슨주교의 두 가지 사랑〉 관람과 이야기 나누기'
(3:00~5:00)
'성소수자 따주보기 – 영화감독 김조광수와의 만남'
(5:00~6:00)</td><td>다과 시간
(2:30~3:30)
'쓰레기, 너 어디서 왔니?'+영상 관람
(3:30~5:30)</td><td>'의료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4:00~5:30)</td><td>이승만 이야기+다큐 토론
(3:30~5:30)</td></tr>
</table>

시간표 / 2
목차 / 4

종교
하루 ——— 간단한 종교 알기 / 6

인권/심리
이틀 ——— 다름을 이해하자 / 16
성소수자 마주보기 / 18
10대의 성性문화 / 26
내 마음 속 미로 찾기 / 32

생명
사흘 ——— 생명들의 목소리 / 44

환경
나흘 ——— 살고 싶다면 행동하라 / 52

역사
닷새 ——— 청산하지 못한 역사 / 70

국가/제도
엿새 ——— 파시즘 / 84
검열을 검열하라 / 95
의료 민영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104

교육
이레 ——— 학벌 사회 / 120

종교

임소현
이건희

대표도서 :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종교학
_게르하르트 슈타군

간단한 종교 알기

임소현 이건희

<목차>

사전적 정의
종교의 어원
종교의 역사
현 시대의 종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전적 정의[1)]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불안·죽음의 문제, 심각한 고민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종교의 기원은 오래이며, 그 동안 많은 질적 변천을 거쳐 왔으나 오늘날에도 인간의 내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교의 어원[2)]

영어로는 Religion이라 한다. Religion은 라틴어 Relegio(렐리기오)에서 유래되었는데 렐리기오는 세 가지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시 읽는다' 는 뜻의 Relegere(렐레게레)가 있다. 기독교 예배나 미사와 같은 종교 의례에서 성경과 같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읽는 데서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둘째는 '다시 묶는다' 는 뜻의 Religare(렐리가레) 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가 종교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다는 데서 생긴 단어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뽑는다' 는 뜻의 Reeligere(레엘리게레)가 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백성을 선택했으나, 그 백성이 제 구실을 못해서 다시 교회를 선택했다는 데서 종교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종교를 뜻하는 Religion은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자로는 宗敎라 한다. 宗는 마루 종 근원, 근본, 으뜸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敎는 가르칠 교 가르치다, 본받다, 가르치다 의뜻을 가지고 있다. 宗敎는 원래 부처님의 지극히 높으신 가르침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위의 뜻을 풀어보면 종교는 최상의 가르침 또는 으뜸 되는 가르침을 칭한다. 이 단어로 칭하게 된 배경은 일본인들이 개항 당시에 Religion이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단어를 찾는 와중에 Religion을 종교라 번역했다.

두 가지 어원을 아울러 보자면 결국 궁극적으로 종교는 최상의 가르침, 신을 만난 인간

1)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 [religion, 宗敎] (두산백과)
2) 청소년 인문학 캠프 2008 '무슨 꿍꿍이야' 참고

의 내적 상태, 진리를 파악한 최상의 경지, 그리고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역사[3)]

종교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모두 다르다. 인간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탐구하다보니 생겨났다는 설 도 있고, 유한한 인간이 가진 무한한 욕망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으로 인한 고통과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의 증거는 약 5만 년 전의 것들이다.

원시시대의 종교는 자연계의 놀라운 조화와 질서를 느낄 때, 그 질서와 조화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인, 혹은 근원적 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근원적 원인이나 힘을, 인격적 모습을 하고 있는 '신' 으로 인식하기도 했고, 혹은 '법' (여기서 이야기 하는 법이란 불교의 중심 관념으로, 자연계의 근원적 법칙이며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 혹은 '도' (만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이며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법칙 그리스 철학에서의 'logos') 혹은 어떤 원리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는 언제나 조화롭지만은 않았다. 갑작스런 자연재해, 폭우, 폭설 등 기후변화에 변화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하며 그러한 초월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대한 초월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며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거대한 초월자에서 성의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 성의 표시가 최초의 종교 의식이였을 것이다. 종교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인간 생명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본능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대인들은 어떤 위기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초월자를 찾아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의탁했다. 그러나 초월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대 제사 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주술과 기도를 통해 초월자나 정령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정령이나 혼령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발전되어 그 모든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인간 세계를 보살피며 때로는 인간의 잘못을 엄격하게 징벌한다고 믿는 최고신 사상도 점차 발전되었다.

사람이 초월적인 힘에 굴복하여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발생 원인이 '두려움' 만은 아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 혹은 '생명이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 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에서 종교적 경배의 대상을 찾기도 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 선조들과 다르게 마치 인간만이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신이 주신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인

3)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류상태 지음 참고

간 위주의 세계관은 서구 종교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관이나 종교관이 옳다고만 할 수 없다. 기독교나, 불교 등 인류역사가 인정하는 고등 종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시 신앙' 적인 종교 형태 또한 고등종교가 갖지 못한 장점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현존하는 세계 종교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원시 종교를 밑거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국가다운 제도와 조직이 마련되고 원시 신앙도 변모되었다. 부족의 족장은 사제인 동시에 왕이었던 고대부족의 생활방식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돼 가면서 제사와 정치는 분리되고, 무는 종교적인 제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업으로 독립되었다.

현 시대의 종교[4)]

현 시대에는 편협한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 부, 명예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종교의 이해로 빌기만 하면 이뤄주시는 기복적, 주술적의 의미로 종교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의 의미와 그 종교가 해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일단 각자 생각하는 종교의 범주에 따라서 이 질문에 답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선택한 종교만이 올바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종교는 인간의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지침서이며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종교의 의미는 인간의 생활수준과 반비례한다. 그러나 미국은 예외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권력으로, 심지어 정치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계몽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 이후 종교는 날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작고 큰 소망들을 현세에서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지식과 복지는 오히려 종교에게는 독이 되는 듯싶다. 그리고 이런 유럽의 세속화는 멈출 기세가 아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교회와 국민의 결속력은 떨어진다. 실존적 문제는 종교 밖에서 해결하려 한다.

교회의 권위는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나온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이 차갑고 방향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영혼의 힘이다. 교회가 신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용물을 찾게 될 것이다.

교회는 신앙을 상품으로 팔아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졌다. 결국 십자가는 상표가 되고 교회는 백화점이 된다. 실제 양대 교회는 '신앙이라는 상품'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경제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거품 속에 살도록 한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덧없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들게

4)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종교학' 게르하르트 슈타군 참고

한다. 참으로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끄는 것이다.”

종교가 종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종교를 지칭한 것은(교회) 주로 많은 예들이 기독교 중심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많은 종교로 해석하여 읽을 여지가 있다는 점 유의해서 읽길 바란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무엇일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종교가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불안한가?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 자유는 무엇일까?

진리는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현시대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종교인이라면 어떤 종교를 만들고 싶은가?

MEMO

초청 강의

/ 양희창 쌤 /

MEMO

MEMO

MEMO

인권/심리

박종은
조은솔

대표도서 : 불편해도 괜찮아
_김두식
게이라서
행복하다
_김조광수, 김도혜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_변혜성

2013년 인문학 캠프 '인권'
<다름을 이해하자>

발제자: 종은, 은솔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인권이란 걸 가지고 태어난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인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인권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아마 갑자기 인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머뭇거리고 대답 못 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로 뭐라고 딱 잘라 정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인권이라고 불린다. 인권은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혹은 '나라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힘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정도, 사는 형편 등이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2. 성= 인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소통하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차이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인간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인문학 캠프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대의 성,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인권’이라는 대주제가 나왔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두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리를 높일 권리 또한 있다.

‘성’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 혹은 ‘성숙한 남녀가 가지는 본능’이다. 하지만 성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sex’에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사전을 봐도 성이 남녀의 구별이나 성행위보다 먼저 ‘사람・사물의 본바탕이나 본성, 사람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소질’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성이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하나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치우친 시작을 버리고 진정한의미의 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5)]

현대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성소수자에 대해 알아보고 성소수자를 직접 만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은 이야기를 나눠 풀고 궁금한 점도 서로 묻고 답하며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10대들은 다이어트, 성형, 화장, 연애, 성관계까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어른들은 “해서는 안 된다”거나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것 외에 그 이유도 잘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듯 10대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억압받고 결정권을 침해받는다. 우리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문제에 따른 대안방안을 제시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5) 2008년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무슨 꿍꿍이야?’ 34p 발췌

2013년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인권'
<성소수자 인권 – 성소수자 마주보기>

발제자: 박종은

1. 종은이의 발제
- 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공부해야 할까?
- 성이란? 성소수자란?
- 성소수자 관련 사례
- 종은이가 생각하는 "이렇게 바라보자!"

2. 이야기 나누기
- 영화 '로빈슨주교의 두 가지 사랑' 관람
- 김조광수 감독과 우리들의 이야기

1. 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공부해야 할까?

'성'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 혹은 '성숙한 남녀가 가지는 본능'이다. 하지만 성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sex'에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사전을 봐도 성이 남녀의 구별이나 성행위보다 먼저 '사람・사물의 본바탕이나 본성, 사람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소질'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성이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하나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의 치우친 시각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6]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 매체에서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의견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해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대표적 소수자인 성소수자에 대해 알아보고 성소수자를 직접 만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은 이야기를 나눠 풀고 궁금한 점도 서로 묻고 답하며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2. '성소수자'란?[7]

흔히 LGBT라고 말한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준말이다.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모두 총칭하고자 할 때 간단히 쓸 수 있는 약어이다.

성소수자 용어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용어들을 바로 알아보자.

---

6) 2008년 제천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무슨 꿍꿍이야?' 34p 발췌
7) 책 '게이라서 행복하다 – 김도혜, 김조광수' 초 간단 게이 용어사전 발췌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이끌림을 뜻하는 단어.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적 및 낭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자각하는 것.[8)]

-호모섹슈얼리티 (homosexuality)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호모 (homo)

동성애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호모는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호모섹슈얼'이 준말 정도 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호모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욕설과 같다.

-동성애 혐오증 (homophobia)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 호모포비아라고도 한다.

-게이 (Gay)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

-게이다(gadar)

게이 레이더의 준말로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애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뜻하는 말.

-퀴어 (Queer)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소수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동성애자'의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반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이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8) 전남대 교수 윤가현의 <동성애의 심리학>에서 발췌

-커밍아웃 (coming out)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아웃팅 (outing)

아웃팅은 커밍아웃과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트랜스섹슈얼 (transsexual)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육체적 성별은 남성에 속하지만 정신 혹은 영혼은 여성인 경우를 'M to F 트랜스섹슈얼'(man to female transsexual)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F to M 트랜스섹슈얼'(female to man transsexu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trans-gender)

트랜스섹슈얼과 같은 말. 별 차이는 없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보통 특별한 구별 없이 같은 말로 쓰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연애 (same-sex acts)

동성애를 비하 하는 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bisexual)

정신적, 육체적 끌림을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느끼는 사람.

-레즈비언, 다이크, 팸 (lesbian, dyke, pam)

레즈비언, 다이크, 팸은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다.

-퀘스쳐너리 (Questionary)

퀘스쳐너리는 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거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아예 성정체성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레인보우(Rainbow)

동성애자의 상징.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무지개 색에서 남색을 뺀 여섯 가지 색으

로, 레인보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성애의 상징이다.

3. 성소수자 관련 사례

현대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사례를 보고 이 사례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영국의 동성애 혐오. 식민지까지>

영국은 동성애 사형 구형을 1861년,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없앴다. 영국의 동성애 혐오는 독립투쟁 당시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식민지에서 계속되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마하트마 간디가 주도한 캠페인이 있었다. 이는 인도 문화, 특히 힌두 문화 안에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자는 캠페인이었다. 이 때 간디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내 11세기부터 힌두 사원에 새겨진 성적인 표현들, 특히 동성애적 표현들을 파기하였다.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야기>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욕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에 반하는 악의 범주를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 네 개의 범주는 자위, 수간[9], 정상체위가 아닌 성교체위,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다. 이후 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견해를 따랐다.

<우리나라 성교육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자료〉

-목차-

성폭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유발 요인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본문내용-

1. 집에 혼자 있을 때

▶ 누구도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2.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 경우

9)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성교.

▶ 자세히 가르쳐 주되 절대로 함께 가지 말아야 한다.

3. 낯선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 내 몸 어디라도 만지려 할 때
▶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도망친다.

(중략)

-목차-

1. 1,2차 성징
2. 정서변화
3. 성욕
4. 이성교제
5. 음란물
6. 자위
7. 수정과 임신
8. 피임

-본문내용-

*성욕이란?

성욕:

- 외부환경의 자극들을 눈이나 코, 귀 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대뇌가 해석하여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성충동이 생기는 것

(중략)

출처) 해피캠퍼스-청소년 성교육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피임과 낙태, 성폭력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고 성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청소년 게이 윤준석의 이야기>

“제가 학교에서 왕따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여자 같대요. 사실 이건 제가 봐도 고쳐야 할 점인데 영화 <친구사이?>보셨어요? 제가 거기 나오는 친구처럼 사뿐사뿐 뛰어다녀요. 애들이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여자목소리 같다면서 게이, 게이 이랬는데 제 별명은 강간범이에요. 애들 참 이상하죠. 게이는 강간범인가요?”

<게이 민수의 군대 이야기>

군형법 92조 5항의 **계간**[10] 처벌 조항, 국방부 훈령 제 1264호 5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제 236조항을 보면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성적 행위는 금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성애자들만 모든 성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제 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제 11조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정신과 102 '인격 장애 및 행태장애'에 따르면 동성애는 성적 선호 장애, 트랜스젠더는 성적 주체성 장애로 구분되어 있다.

동성애자 민수는 훈련소에서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는데 이후 군 생활이 힘들어졌다. 훈련병 생활 이후 바로 의무대로 옮겨 갔지만, 군의관은 어떠한 치료도 해줄 수 없고 해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 뒤 군에서는 민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에이즈 검사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에서 민수에게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강요한 것이었다. 군은 키스하는 사진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했다.

<브라질 여성 국회의원 '마르타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당의 여성 국회의원 마르타 수플리시는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1980년대 초반 이래 투쟁적인 레즈비언과 게이 활동가들은 모든 종류의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노동당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다. 반차별 법은 세르피지 및 마뚜구로소 두 개의 주와 70개 이상의 지방자치에서 통과되었다.

<아르헨티나 트랜스젠더 단체>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섹슈얼의 권력과 정체성을 위한 모임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트랜스젠더 단체가 1991년에 결성되어 시위를 했으며 이는 1992년에 첫 번째 '레즈비언, 게이 자부심 행진'으로 이어졌다. 단체 결성과 정치적 캠페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96년에 지방자치가 실현된 후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이 금지된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10) 닭이 교미하는 모습이 후배위 성교 자세와 비슷하여 붙여진 용어로, 남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여 일컫는다. 군형법 제 92조 5에서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률 중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 2013년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수용한 나라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회 전반에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입양을 제외하고는 이성 커플들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결혼은 다르거나 혹은 같은 성의 두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결혼이란 개념에서 동성과 이성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성소수자의 방송 활동>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게이 홍석천과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있다. 개그맨 홍석천은 2000년에 커밍아웃을 한 뒤 3년간 방송활동이 중지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본인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고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들을 차츰 내려놓았고 동성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트랜스젠더 하리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성전환 연예인으로 CF 모델로 데뷔했고 이후에는 배우, 모델, 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하리수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별 정정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성전환자이다.

4. 이렇게 바라봅시다! 종은이의 생각!

나와 내 페이스북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종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말로써, 글로써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살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 다뤘듯이 현재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 군대는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되지 않고 연대책임이 난무하며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건 오히려 차별을 더 요구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함께 살려면 동성애자들도, 아닌 이들도 자유롭게 병역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 없이 군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동인련이 펴낸 성소수자 지침서를 적극적으로 읽고,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성소수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군대 내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와 가정, 종교집단에서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단어로써 규정지어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라고 부름으로써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확고하게 부각시켜 오히려 더 색안경

을 끼고 보게 되고 더 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성소수자들은 그들이 커밍아웃 하기 전에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나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일반인들과 차별 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 취향과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밝힐 권리가 있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 성소수자를 따로 보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누군가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소수자들이 다수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5. 이야기 나누기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거나 오해했던 점을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한다.

☀영화보고 이야기 나누기

영화 '로빈슨주교의 두 가지 사랑'을 관람하고 성소수자 관련 영화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후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이야기 나누기

평소에 성소수자에 대해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지에 적어 감독님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10대의 성性문화

조은솔

큰주제: 현대사회 10대 성문화
소주제: 우리안의 문화 / 우리는 섹스를 원하는가?

〈 목차 〉

개요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
성문화의 개념
우리는 인문학에서 왜 10대의 성문화를 배울까
1. 현대사회 10대 성문화 문제인 것일까?
 1) 현대사회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기사
 2) 학교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2. 내가 바라본 현대사회 10대의 성문화
3. 우리안의 성문화에 대해 토론하기(우리는 섹스를 원하는가?)

개요

성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으로 다가온다. 10대들은 다이어트, 성형, 화장, 연애, 성관계까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어른들은 “해서 안 된다” 거나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것 외에 그 이유도 잘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듯 10대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억압받고 결정권을 침해 받는다. 우리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문제에 따른 대안방안을 제시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

나는 중학생 때부터 연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헤어져 보는 과정을 많이 지나갔다. 연애를 하는 과정 중 연인과의 스킨십 진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등이 된 지금 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인문학 때 호기심과 열정이 많은 10대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생각을 넓혀가기 위해 인문학 주제로 잡게 되었다.

성문화의 개념

문화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생활양식으로, 성문화란 한 사회에 널리 생활화 되어 있는 성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성역할을 비롯하여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왜 인문학에서 10대의 성문화를 배울까?

인간의 대부분 삶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10대와 성인 초기 단계에 위치에 있다. 10대 관심분야 중 성, 한편으로 조심스럽지만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성이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하나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10대 때는 순결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하고 성인 초기에는 성숙한 몸이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중 현대사회에서 이슈 되고 있고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부분을 인문학을 통해 알아보자.

1. 현대사회 10대 성문화 안경 쓰고 바라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같이 살아가면서 의존되고 있는 시선의식이 있다. 현대 10대 성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고 보고 있는지 부정적, 긍정적으로 나누어 두 가지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시선을 알아보고 우리는 10대의 성을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지 애기를 나눠보자.

1)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대사회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기사

〈 "사랑하는게 잘못인가요?" 〉

A군은 B양 전에도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 그의 첫 경험 나이는 열다섯. B양보다 1년 정도 빨랐다. A군은 "자신의 친구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첫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A군은 자신이 남들보다 빠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A군은 "여자친구와 사랑을 하는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 "좋아서 하는데 뭐 어때" 〉

지난 고교생들의 장난(?)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다.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장난을 치는 동영상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노골적인 스킨십을 지켜보는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하나다는 지적이다.

개방된 성문화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 인식 수준이 너무 미비해 청소년의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와 미혼모 영아 유기 등의 각종 청소년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청소년 성윤리 의식의 부재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아이들의 대화 장소(인터넷) 〉

10들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성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생리, 배란, 임신 등 기초적인 성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보였다.

"중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있고 이런 애들은 거의 다 해요", "임신해도 배를 발로 차면

유산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안에 해도(질내사정) 배에 힘주면 다(정자) 나와", "어차피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때" 등 현재 일부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대답은 심각성을 더했다.

〈'막장 10대' 성윤리의식 부재〉

지난 해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놀이터 CCTV에 찍혔다.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보안 카메라는 유선채널을 통해 24시간 생방송된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두 학생은 그네에 앉아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한 그네에 포개 앉아있던 두 학생은 일반 연인처럼 서로를 어루만지다가 곧 농도 짙은 스킨십에 들어갔다.

수위가 좀 높아지는가 싶더니,(중략) 두 청소년은 그렇게 놀이터에서 짧은 밀애의 시간을 갖은 뒤, 자리를 떠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대들의 최후의 방법〉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버려지는 갓난 아니는 약 50명, 지난해 부모로부터 버려진 신생아는 87명으로 집계됐다.

방법은 다양했다. 신생아를 화장실에 몰래 아이를 낳고 그대로 버리고 가거나, 집에서 낳아 죽인 상태로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낳자마자 여관 앞에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CCTV에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 대부분이 미혼모였다. 대책도 없이 아이가 생겨버린 소녀들이 부모님과 친구들 등 주위의 시선에서 도피하려는 최후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생겨나는 것과 버려지는 영아들을 막으려면 우선 사회적인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학교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性교육

"학교에서 성교육 할 때 배란 주기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그게 정말 맘에 안 들었고... 그러고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그리고 1차 성징, 2차 성징, 이런 거 배우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애들이 이래요. "아 차라리 야동을 틀어 주세요." 이래요. 솔직히 애들 알 거 다 알거든요? 한 애들도 많고."

"성교육이요. 예전 같이 고리타분하게 하면 안 먹히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일찍 성관계를 잘못해서 애를 지우는 그런 거 막 보여 주고 순결 서약 캔디 이런 것 주고, 고등학교 즘 올라가고 하니깐 콘돔 끼우는 것 실습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건의를 했어요. 애들이 오면, 우리는 물티슈가 아니고 콘돔을 하나씩 주자고, 나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르다고, 안 먹히더라고요."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 청소년은 “장난 같다”, “재미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미 초경을 경험한 초중고생들의 성 수준은 가장 기본적 성에 대한 상식조차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상담센터에는 “청소년의 원치 않은 임신과 미혼모의 증가는 예견된 결과”라며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수위가 높아만 가고 있는데, 아직 선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개방적인 문화에 맞춘 체계적이고 솔직한 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내가 바라본 현대사회 성문화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는 10대들의 동거, 임신 등에 대한 기사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성간의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걱정 섞인 말들도 많이 듣는다.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10대들이 성관계를 맺고 그에 따른 임신에 낙태를 하는 문제에서 현대사회는 순결한 존재로 남아있길 바라는 기대에서 벗어나 큰문제로 다가온다.
하지만 70, 80년대만 해도 10대 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렸던 나이다. 사회기술이 발달해 음식, 먹을거리가 좋아져 현대 10대들의 몸이 훨씬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10대 때 좋아하는 성인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단지 10대(성숙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만들어 버리는 부모도 있다.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상처를 주는 경험이 아니라 쿨한 한 번의 경험, 일상 속 한편의 기억일 수 있다. 오히려 어른이 개입해서 해결한 부분들이 더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10대의 성관계를 시작한 계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순간 정말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반면 상대방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일반적인 협박 및 강요로 인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고학생 때 첫 성경험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 등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10대들의 성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10들의 사랑도 존중받아야하고 인정받아 한다고 생각한다. 10대 청소년 법에서 10대 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왜 10의 성은 보편화 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부모님,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성관계를 했다고 밝히는 거에 부감부터 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의식이 든다.

솔직히 현대사회 10대 아이들의 성문화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미성숙한 10대들의 무분별한 관계에서 충격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초적인 성 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 많이 놀랐다. 10대 때 성관계를 하고 피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임신을 해서 그에 최후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버리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팠

다.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고 기본적인 지식과 10대가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신을 했을 경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유산을 선택할 경우 내 몸의 소중함을 안다면 유산하기 위해 계단에서 구르고 배를 발로 차는 위험한 짓은 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말 사랑과 성에 대한 생각이 70, 80년대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다. 어른들은 "해서는 안된다',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 외에 그 이유도 잘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대안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아이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만 한다.

10대와 소통하려면 10대의 문제(비행)에서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이 '서있는 위치'에서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10대의 성문화도 '그들 알기'부터 시작해야한다. 특히 10대들이 누구와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10대들의 섹슈얼리티 경험을 가시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학력, 외모, 돈 벌기 등의 맥락에 집중한다.

10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까이 가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 외모, 섹스 문제 등에 대해 들어본다.

아무리 주위를 주고 얘기해 봤자 성적욕망은 충동적이란 걸 안다면 대안방법으로 콘돔을 쥐어 주면서 얘기 하는 게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4. 우리안의 성문화에 대해 토론하기(우리는 섹스를 원하는가?)

현대사회 일반학교 학생들은 "그냥 친구들 끼리 이런 거 다 터놓고 얘기하는 편이라 임신했을 때 얘기도 해요. 그냥 친구한테 '야, 나도 애기 가졌다' 그러면, 친구는 '으유 조심 좀 하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섹스, 임신에 대한 얘기도 편하게 하는 이유는 제 친구들도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경험은 정말 많아요. 절반 이상? 한 80퍼센트는 했다고 보면 돼요." 이렇듯 성경험에 대해 수치심 안 느끼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서로 터놓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눈다. 하지만 그에 비에 우리학교는 성경험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부끄럽게 생각되고 있다.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그 가치관이 옳고 이런 건 아니다. 10대 나이에 경험 했다는 거에 수치심 느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 시선에 의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성경험을 밝히는 거에 부감부터 든다.

나는 이 자리로 인해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10대의 성문화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학교 고등중심으로 성관련 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커밍아웃을 해볼 생각이다.

그럼 과연 우리는 '섹스를 원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

(개인적인 자기의 사고방식, 가치관 얘기 나누기)
-아이들은 연인과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고 싶은지
-10대들의 성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임법은 뭐고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첫 경험은 몇 살 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날 밤 술 먹고 술김에 모르는 사람과 섹스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연인과의 성관계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라고 생각하는지
-길거리에서 10대들의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린 10대들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대사회 10대 성문화는 문제점인 것일까? 문제점이라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안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연인과 만남에서부터 스킨십을 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어른들, 주의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의식으로 인해 고정관념, 편견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편견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럼 우리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 사람들의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우리의 성문화를 바라보자.

내 마음 속 미로 찾기 <심리>

발제자 : 신 지 성

▼목차

1. 개요
2. 심리란?
3. 어디선가 들어봤던 심리학 용어
4. 재미있는 심리테스트
5. 자아존중감이란?
6. 자아존중감 = 나, 인생
7. 미술을 통해 '나'만나기
8. 프로그램 설명&실행
-내가 누구게
-자기신체꾸미기
9. 소감 나누기

1. 개요

인문학(人文學)은 인간의 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을 인문학이라고 한다.

나는 여러 인문학 공부 중에서도 나와 타인을 알아가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치여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 들여다보고, 타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2. 심리란?

명사<심리(心理)>

-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 사람의 심리란 참 묘한 거야.
  - 환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 혼자 공을 세워 보자는 영웅 심리가 더 강하게 그를 부추긴 것이다.

3. 어디선가 들어봤던 심리학 용어

-피터팬증후군 - 피터팬증후군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어른들이 걸리는 병이다.

성인이 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나 정부의 보호만을 바라는 기업을 이야기

할때도 피터팬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파랑새 증후군 -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증세를 나타내는 증후군입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유래는 벨기에의 극작가인 마테를링크의 동화극 <파랑새>의 주인공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잉 적응 증후군 - 일중독증(Workaholic) - 자기의 삶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고향 친구들보다는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행여 집안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받는 것 같아 귀찮아한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욕구는 제쳐둔 채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과잉 적응 증후군' 또는 '일중독증'이라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랑해 주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다. 기대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대하면 그들의 지능, 태도, 행동까지도 변한다.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나르시시즘(Narcissism) -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원래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1899년 정신의학자 네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쾌감을 느끼기 위해 보고 만지고 애무하고, 자기 몸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행위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4. 재미있는 심리테스트

- 무의식 심리테스트

1. 두둥! 내 앞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 외계인을 보고 당신이 처음 건낸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태도는?
2. 새하얀 방에 천장을보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았는데요. 자고 일어난 뒤에 그 양동이는 얼마나 차있을까요?
3. 직육면체 하나와 사다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둘의 크기는 어떻고 어떤식으로 놓여져 있을까요?
4.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무인도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짐승 일까요?
5. 그 짐승과 길을 걷다가 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짐승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건너갈까요?

- 파랑새 증후군

1.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의욕감이 떨어지고 피로가 밀려온다.
2.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3. 이상에 대한 꿈을 꾸고 생각을 하면 설레이는 경우가 많다.
4. 언제나 이상에 대한 환상이 머리에 있다.
5. 이상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파랑새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현재 나의 심리상태

아래 단어중에서 현재 가장 마음에 닿는 단어를 골라주세요.

1.여행 / 2.엄마 / 3.아침 / 4.친구 / 5.공부 / 6.별 / 7.음악

–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

아래의 문항을 읽어 보시고 최근 보름동안의 자신 상태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

	- 귀가 얇은 편이다. - 집안 식구들로부터 가정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 아침에 눈 뜨는게 두려운 적이 있다. - 깊은 잠을 못자고 자주 잠에서 깬다. -늘 쫓기는 느낌이 든다. -식욕이 없어 잘 안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 - 매사에 집중이 안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잊어버린다. - 텔레파시, 육감, 사주를 믿는다. - 만사가 귀찮고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 나에 대한 안좋은 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 - 말과 행동이 거칠어 졌다. - 느닷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가 있다. - 남들과 터놓고 속 얘기하기를 꺼린다. - 동료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다.	- 내 일이 지겹게 느껴진다. - 동료가 제멋대로 행동한 적이 있다. - 납득할 수 없는 요구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 업무 중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다. - 시간 약속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 리액션이 과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생각이 많아 일이 늦어진다. - 나는 남들보다 특별했으면 좋겠다. - 쉽게 부끄러워하고 반응에 몹시 민감하다. -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 - 아무런 이유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 공개적으로 혼난 적이 있다. - 일의 분개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전혀 없었다(0점), 가끔 있었다(1점), 자주 있었다(2점)

0~15점 – 특별한 정서적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16~25점 – 약간의 스트레스가 의심되고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26~40점 – 중증 스트레스가 있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1~60 –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반드시 전문치료가 필요합니다.

5.자아존중감이란?

자존감은 환경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용하며, 사랑스럽고, 유능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며 자기회의에 빠진다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 건전한 성장과 성취는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을 건강하게 평가하고 잘 적응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자존감 형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아개념은 자기 지식과 자기 평가로 이루어진다. 자기 지식은 자신의 성격, 독특한 자질,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다정하다”, “나는 좋은 학생이다”와 같은 것이다. 자기 평가는 이러한 자신을 승인하거나 비승인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자기 평가가 호의적인가 혹은 비호의적인가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된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 느낌, 판단 및 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현 시대를 살다보면 사람은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무가치하다는 기준은 진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단위의 가치있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한 개인이 가치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접하려는 결정을 통해 ‘자아’의 개인적 주체성의 존재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삶’에 초점을 두는 일이 필요하다.

[출처]<방과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25p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 비교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
안정감	- 새로운 과제에 의욕적으로 접근 -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낌 - 권위에 대해서 편안히 느낌 - 교사에 관심을 적절하게 구함 - 세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조망	- 새로운 과제를 두려워 함 - 학교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함 - 권위에 저항하거나 도전 - 잘못된 행동으로 관심을 구함 -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표현함

정체감	- 느낌, 의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나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질문함 - 관심의 범위가 넓음 - 비평이나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화내거나, 적대시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수용함	- 느낌, 의견, 생각을 밝히기를 꺼려함 - 질문하기를 주저함 - 관심사가 적음 - 비평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극도로 민감함
소속감	-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함 - 자신감있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 - 성취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 - 소유물로 또래지위를 얻으려 하지 않음 - 타인의 성취를 인정 - 확고한 우정을 유지	-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함 - 자신을 격리시키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 과시함 - 성취에 대해 뽐냄 - 소유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려함 - 우정을 형성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움
목적의식	-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구함 - 자신이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 지향적임 - 배우고 행하는 것에 관심과 열정을 보임 -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함	- 쉽게 포기함 - 독립심과 방향감을 거의 보이지 않음 - 지루해 보임 -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유능감	-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낌 - 책임감을 수용하고 지도자의 위치를 취함 - 자신의 성공을 인정함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함	-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요청함 -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함 - 성공을 운이나 우연으로 돌림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지도 못하고 약점을 수용하지도 않음

[출처]<하상쟁애인복지관 실습생 카페>|권기예

6. 자아존중감 = 나, 인생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자아존중감이라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보단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서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뭔가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 생각하며 평생 안전한 일만 하고 싶게 된다.’ 대부분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과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난 못 할거야' 등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항상 깔려 있다. 그러니 항상 소극적이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 비참하게 느끼게 되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난 별 볼일 없는 존재’ 라고 취약한 자신감이 부정적 자기이미지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

"넌 네가 좋니?" (Do you like yourself?)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스스로에 대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이미지는 본인이 본인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말한다. 본인이 좋은 사람이고 친구들이 좋아할 만하고 장점도 많고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걸 우린 긍정적 자기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학습, 목표, 가치관 등 인생의 전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사람은 살면서 여덟단계의 시기마다 마음의 위기를 겪는다고 한다. 에릭슨은 이것을 정체성의 위기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성숙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니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숙이란 단지 청소년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계속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청소년기이지만 인간은 나이를 먹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후 하나의 완결체로 거듭난다고 생각한다.

자아가 자기를 모른다면 어떻게든 불행을 만들게 되어있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만드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특성이 바뀌고 내가 찾고 또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들면 막연히 자아정체성을 갖춘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내다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겪겠구나 싶었다. 앞으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발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번 인문학 캠프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7. 미술을 통해 '나'와 만나기

청소년과 미술치료

1)청소년 미술치료

· 청소년의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고 감정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청소년기의 민감한 감각을 살려 접근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언어나 수치로 자신을 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면을 표현한다.

· 외부 자료의 습득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인식을 돕는다.

·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인식해 가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므로 거부감이 적다.

· 작품세계를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상적인 견해를 나타내 볼 수 있다.

· 내면표출 및 욕구 발산이 되면서 무표정, 신경질적인 반응 등 우울행동이 감소한다.

· 억압으로 인한 무기력한 것들을 회복하고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을 중요시하는 시기이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는 평가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집단원들은 서로 에너지와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억압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청소년은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 하고 자기 통합, 동일시가 더욱 용이하며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의 개입으로 잠재적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8. 프로그램 설명&실행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목 표	1)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며 집단원 간에 관계를 형성한다. 2)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 3)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킨다. 4)자기소개를 통해 가장 초보적인 자기노출의 기회를 갖는다. 5)집단에서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6)자신의 이름을 개성있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다. 7)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한다. 8)자신의 존재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9)신체의 소중함을 안다. 10)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준비물	크레파스, 색연필, 색사인펜, 파스텔, 스카치테이프, 잡지책, 가위, 풀, 포스트잇, 색종이, 물감, 4절지, 8절지 등
도 입	1)미술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2)프로그램 실시방법과 진행을 안내한다. 3)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치켜야 할 집단규칙을 함께 정해본다.
진 행	〈'내가 누구게'〉 1. 워밍업으로 서로의 이름을 말한다. 2. 준비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꾸민다. 3. 둘러 앉아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다. 4. 자신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8.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자신의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의 작품설명을 들으면서 중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9. 주변을 정리한다. ---------- 〈자기 신체 꾸미기〉 1. 각자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이나 자신의 전체 모습을 종이에 그린다. 2. 본뜬 그림을 어떻게 채색할 것인지 결정한다. 3. 자신의 내.외적인 장점을 살려 꾸민다.

	4. 모두 그린 후 집단원의 그림에 자신이 생각하는 집단원의 장점을 첨가시켜 주거나,하고 싶은 말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준다.
마무리	1) 주변의 물품들을 정리한다. 2)작품을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지, 만족한 점을 이야기 나눈다. 3)집단 그림 안에서의 자신의 그림을 보고 느낌을 나눈다. 4)그림에 나타난 이미지와 자신의 현실생활과 관련시켜 이야기를 나눈다. 5)인사를 하고 마무리한다.

MEMO

초청 강의

/ 김조광수 쌤 /

MEMO

MEMO

생명

강아롬
강한울
권수지
정지훈

대표도서 :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_빌프리트 봄머트
생명에 대한 예의
_장회익 외 22명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
_모비, 박미연

생명들의 목소리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많은 생명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나누어 보자

1. 벌레도 생명, 인간도 생명
- 도법스님의 한 말씀
- 하루살이와 사자

2. 생명들의 목소리
- 동물과 인간
- 인간들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들
  1) 돼지
  2) 닭
  3) 소
  4) 물고기
  5) 한국에서만 시간당 10만 마리
- 인간들에 의해 바뀌어가는 유전자
- 생산만이 문제인가?
  1) 우리는 어떤가?
  2) 패스트푸드

+ 마무리

1. 벌레도 생명, 인간도 생명

- 도법스님의 한 말씀

지금 지구촌에는 꿀벌들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꿀을 따러 나간 벌들이 전자파로 인해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촌에서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4년 안에 대재앙이 인류 사회에 덮쳐 온다고 합니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과, 포도, 쌀 등의 먹거리가 생산될 수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는 인류의 삶이란 고통과 죽임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더 많이 더 편리하게를 쫓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그릇된 가치 의식과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꿀벌이 사라지고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인류의 운명도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면 꿀벌이 나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꿀벌 그 자체가 바로 내 생명의 모체입니다.

꿀벌 없는 내 생명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꿀벌과 내 생명의 관계는 그야말로 그물의 그물코처럼 불일불이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꿀벌과 내 생명의 관계처럼 모든 상대들과 내 생명이 불일불이적 관계로 이루어진 모습의 그 실상을 시각화한 것이 생명평화로고입니다.

-도법스님-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中

- 하루살이와 사자

도법스님은 모든 생명이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는 않다고 했다. 꿀벌들이 우리들에겐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한 것처럼 모든 생명들과 그물코와 같이 연결되어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소중한 생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먹는다는 건 다른 생명에 손을 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벌레를 먹든 풀을 먹든 동물을 잡아먹든 모든 것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같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다른 생명을 건드리기 마련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와 같은 생명을 지닌 생명들을 건드리는 건 과연 자연의 이치일까?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걸까?

다른 생명에 손대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는 하루살이(상징적 의미)가 옳을까,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사자가 옳을까?

하루살이의 삶이 옳다면 배고픔에 시달려 죽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허무하다. 반대로 다른 생명을 해쳐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자의 삶이 옳다면 생각을 많이 해 볼 수 있겠다.

사자는 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며 짐승들을 노린다. 인간은 어떤가. 과연 우리는 오로지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도축하고 물고기들을 잡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들은 다른 생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먹고 살기위해 먹을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생명들의 목소리

- 동물과 인간

고대시대 때부터 알아보자. 고대시대 인간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였다.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사냥하였고 그를 통해 생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사냥을 하면서도 동물을 존중할 줄 알았고 동물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다. 고대인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였고 각 부족, 지역마다 각기 다른 전통을 갖고 다양한 동물들을 신으로 모셨다. 동물의 몸에서 나온 피나 장기를 바른다던지, 죽은 시체를 소가죽을 씌워 묻어주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소를 감사히 여길 줄 알며 귀중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 소를 함부로 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근대화가 되면서 인간은 동물에게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동물을 존중하지 않았다. 동물을 산채로 해부하거나 실험을 하면서 동물들은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괴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이외에 가축, 야생동물 등은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인간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고통 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단순히 문명이 발달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가치 존중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윤리를 거스르면서 인간은 지적이고 제일 뛰어난 생명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 인간들에 의해 죽어가는 동물들

우리가 먹는 다양한 동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에 시달리며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무자비하게 살육된다. 이들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생명체로써 존중해 주어야한다. 우리는 절대 이들의 생명을 멋대로 소유하고 가치를 내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동물들의 권리를 짓밟고 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인간이 진화할수록 동물들은 더욱 죽어가고 인간은 자신의 만족에 취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고기가 단순히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간으로 통해 모두 알아보자. 우리가 자주 먹고 쉽게 접하는 네 가지 동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 돼지

가금류와 어류를 제외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바로 돼지이다.

대부분의 출산용 암퇘지는 각각 '임신용 우리'에 갇혀 지내는데 1.3제곱미터 정도의 이 칸막이 안에서는 돼지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다. 돼지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다. 방목식 농장에서라면 코를 땅에 박고 이리저리 다니며 먹이를 찾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진흙탕에서 뒹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 갇혀서는 그런 자연스럽고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암퇘지는 밀폐된 우리에서 4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지내게 된다. 그리고 분만 틀로 옮겨져 오직 새끼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이처럼 1년 중 10개월 정도를 움직일 수 없이 지내며 수컷과 번식을 할 때만 잠시 합사 시킨다. 하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이런 극단적 감금 생활로 이들의 근육은 무력해지고 뼈는 가늘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따른 각종 장해가 일어난다. 극단적 감금에 따른 심리적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

다.

2) 닭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물고기 이외에 인간이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은 흔히 가금류라 칭해지는 닭이다. 닭은 그 많은 수만큼 수용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닭을 최대한으로 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감별사들에게 암, 수가 분리되어 쓸모없는 수컷 병아리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버려져 바로 분쇄기에 갈려서 동물사료나 육류품에 사용된다.

감별 절차를 마친 산란용 닭들은 A4종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철망 우리에서 1년 동안 갇혀 지낸다. 좁은 우리 속의 닭들은 날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다.

육용으로 기르는 닭은 겨우 생후 40일 만에 도살된다. 50년 전에는 84일이었던 것이 더 줄어든 것이다.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 촉진제가 다량 함유한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료로 인해 닭들은 40일 만에 '시장 중량'에 도달하며 더 빨리 그렇게 되기도 한다. 사람이 이들 닭처럼 빠르게 자란다고 가정하면 두 살 때 158kg이 되는 셈이다.

3) 소

젖소의 우유를 최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젖을 과도하게 짜낸다.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인 존 웹스터에 따르면 "젖이 가장 잘 나올 시기에 젖소가 짜내는 것은 엄청나다. 이런 업무 강도를 사람의 일에 적용해 보면 매일 6시간 정도를 달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하였다.

과도하게 착유기를 착용하며 각종 항생주사를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젖소는 유선염을 가지고 있으며 젖에 크기가 불어나 땅에 끌려 상처가 나는 경우도 반사다.

또한 현재 공장식 축산업의 소들은 100% 가까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다. 태어난 소들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뿔을 제거하는데 이는 마취 없이 진행된다. 국내의 젖소는 약 450,000만 마리[11] 정도 되며 젖소는 1년에 5,000KG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한다.

인간에 의해 소들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에서 곡식을 먹는 동물로 바뀌었다. 옥수수는 고기와 지방을 늘려주어 소들은 점점 살이 찌고 마지막에 소들은 보디빌더처럼 넓은 가슴과 건장한 어깨, 튀어나온 엉덩이 근육을 갖추어야 한다. 더한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고기 갈아놓은 것들)을 섞어서 주기도 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광우병에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 종 질병으로 인해 대량의 항생제와 소의 오물에 꼬이는 파리들을 쫓아내기 위해 살충제를 뿌려댄다.

이렇게 자란 소들을 도축장으로 몰아넣고, 전기 충격기로 이마를 치면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쓰러진다. 그러곤 호스로 피를 뽑아낸 뒤 컨베이어에 실려 톱에 잘려 두 동강이 낸 소는 포장되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

4) 물고기

11) 국내 홀스타인 젖소의 비유지속성 평가에 대한 고찰 /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미국에서는 사육되는 돼지의 10배 이상의 물고기(16억 마리)가 양식되고 있다. 해상 또는 지상의 양식장은 동물의 고통, 질병, 죽음을 가져온다. 밀집된 환경에서 물고기들은 도망갈 곳 없이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되며 그로 인해 양식장에는 대량의 약품들이 투여된다. 그로인해 양식장에서 쓰이는 항생제, 기생충 약, 살충제, 호르몬제, 기타 화학물질은 물고기의 건강을 해치며 주변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 때문에 연안 물고기들이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연안 지역의 자연산 물고기의 어획도 위험해 졌다.

어획으로 포획되는 물고기 또한 엄청난 양이다. 거대한 어망을 통해 수 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며 다른 불필요한 해양생물들도 같이 건져진다. 그러한 필요 없는 수많은 생물들은 상처를 입은 채 죽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류도 다른 생명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그물에 건져진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물속에서 나오면 숨을 쉬지 못해 압사하거나 질식사를 통해 괴롭게 죽어간다.

어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 앞에서 살아있는 소를 즉시 도살하여 바로 음식이 되어 밥상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며 먹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시장에 가면 우리 두 눈앞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활어회를 아주 맛있게 먹는다. 우리는 왜 물고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감각한 것일까?

5) 한국에서만 시간당 10만 마리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육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자라나고 난 뒤 결국엔 인간에게 먹히는 동물들은 얼마나 도살당할까? 미국과 한국 축산업 도살수를 알아보자.

<매월 미국 축산업에서 도살하는 동물>[12]

전체	952,485,950
닭	756,271,150
양식 물고기	135,293,667
돼지	9,713,242
젖소	2,876,200
오리	2,012,417

<매월 한국 축산업에서 도살하는 동물>[13]

전체	71,222,414
닭	62,258,033
소	970,302
돼지	1,268,394
젖소	45,754
오리	6,679,931

미국 축산업체들은 매년 90억 마리의 닭을 사육하며 시간 당 100만 마리씩 도살하여 연간 평균 80마리의 가금류를 먹는 미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스미스 필드푸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돼지 도살장에서는 거의 5,000명의 노동자가 매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라인에서 도살된 돼지 정리하기, 털 뽑기, 해체하기, 고기

12)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
13) 농림수산식품부

저미기, 뼈 제거하기, 지방 분리하기, 그 밖의 돼지 해체작업 등을 하는데 하루에 3만 2,000마리까지 해야 한다. 시간당 2,000마리, 분당 33마리다. 돼지 1마리당 2초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위해 이렇게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걸까?

– 인간들에 의해 바뀌어가는 유전자

인간들의 욕심은 생명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들은 다양한 생명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크고, 맛있고, 균일하고, 생육기간을 최대한 짧게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옥수수, 콩 자급률 1%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90%, 콩 93%가 유전자조작농산물이다. 옥수수 유전자를 해충 저항성 5%, 제초제 저항성 14%, 다중형질(해충저항성+제초제 저항성) 71%로 조작해 인간들 입장에서 생산성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행동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한 채 자연의 순환논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이 반복되고 더 나아간다면 지구의 온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지금 GMO는 인간이 만든 파괴의 씨앗으로 가고 있다. “자연의 공장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반자연적인 이런 수많은 행위들은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인간에게 필히 되돌아오게 되어있다. 그것을 누구나 알게 될 대쯤이면 이미 늦은 것.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 생산만이 문제인가?

앞서,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생산만이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생산을 했으니까 소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니까 생산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1)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고 있을까? 지난해 국내 육류소비량은 1인당 43.7㎏의 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 종류별로 보면 돼지고기 소비량이 1등을 차지했으며, 이어 닭고기와 쇠고기가 뒤를 이었다. 오리고기 소비량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들은 고기를 얻기 너무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집 앞 가게에 가서 먹기 좋기 위해 포장된 육고기를 사오기만 하면 된다. 자연스레 고기의 근원지와 생산지에 무관심 해지고 눈앞의 현실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는 단순히 “광우병이니까 나빠” 등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판단한다. 이는 육류와 더불어 채소나 과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느 순간 우

리는 제철에 맞지 않는 과일이 판매대에 올라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구입한다. 가족이나 자신들의 건강만을 챙길 뿐이다. 환경과 생명에 대한 생각은 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 시대 사람들이 즐겨 간편히 즐겨먹는 페스트 푸드를 얘기해보자.

2) 패스트푸드

오늘날 자본주의와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바쁜 생활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메뉴를 시켜 천천히 여유롭게 밥을 먹을 시간이 사라졌다. 1955년 맥도날드를 설립하여 패스트푸드라는 현대인의 걸맞은 음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맥도날드는 25개국에서 200억 달러의 총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60만 사원들이 고용된 1만 1,000개의 매장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은 맥도날드에서 자동차로 5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만큼 맥도날드는 소비자와 가깝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외식식품산업의 10%는 맥도날드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국내도 점점 더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맥도날드가 들어서면서 패스트푸드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롯데리아, 버거킹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매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로인해 더욱 더 많은 생명들은 무자비하게 죽어나가 오직 인간을 위한 햄버거로 변해가고 있다.

+ 마무리

생명이란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 가장 본질적인, 먹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 고통 받고 학살당하는 가축들, 우리의 편의와 입맛에 개조 당하는 식물들, 인간은 생명이란 가치를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과 즐거움으로 맞바꾸어 버렸다. 인간이 진화할수록 죄 없는 동식물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 인간들은 다시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욕심을 위해 먹는다는 핑계를 대는 것인가?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 빨라지고 지금 사람들은 자본주의 속에 본질을 묻지 않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믿는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인간보다 위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환경

최햇님
한다연

대표도서 :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_클라이브 해밍턴

노 임팩트 맨 / 플라스틱 바다
_콜린베버 / _찰스 무어

사라진 내일 / 슬로 라이프
_해더 로저스 / _스지 신이치

살고 싶다면, 행동하라

(주제: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우리의 과소비와 쓰레기 문제)

발제자 – 최햇님, 한다연

<목차>

1. 개요
2. 지구, 이대로 괜찮은가?
3.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왜 때문이죠?
4. 쓰레기, 너 어디서 왔니?
5. 지구를 지키고 나도 지키며 살아가는 법
6.결론

1. 개요

요즘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워진 시대에서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대량생산은 대량소비를 낳고 이는 대량폐기로 이어져 쓰레기와 여러 요인들로 우리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금 지구가 직면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공부하며 우리의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환경을 위해, 나를 위해!

✓강의 시작 전에 얘기 나눠보기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2.지구, 이대로 괜찮은가?

지구온난화,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

지난 1만년동안 지구의 기온은 1℃ 이상 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4℃~0.8℃가 상승했고, 한반도는 무려 1.5℃나 상승했다. 동해 해수면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6.6mm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해수면이 평균 3mm씩 높아지는 것에 비해 2배나 빠른 속도이다. (1m의 해수면 상승으로는 1억 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오존층 파괴**와 과도

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이다. 1980년대 초, 오존층 두께가 얇아졌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높은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 광선을 여과해서 생명체들이 유해한 자외선 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오존층은 대기 중에 퍼지는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파괴되는데, 프레온은 가정의 모든 냉동장치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1980년대까지 연간 50만 톤의 프레온 가스가 제조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연소시키는 인간의 활동(승용차, 도시가스, 수돗물, 가전제품, 조명기구 등)으로 인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40%)**, 주택과 사무실 등의 건물(31%), 교통(22%), 농업(4%)을 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서 우주 공간으로 반사될 태양 광선의 일부를 대기 속으로 흡수시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했다. 2007년 중국은 미국(59억 톤)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60억 200만 톤)이 되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다다를 즈음에는 인도가 경제성장의 중반에 돌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몇 해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넘어섰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35년 안에 유례없는 더운 날이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실은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경 가장 추운 날이 과거 150년간 기록된 가장 더운 날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며, 열대지역에서는 이보다 빠른 2020년경부터 이러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카밀로 모라 지도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더운 날을 떠올려보라. 머잖아 이런 날이 일상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며 "가장 대비가 안 된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대로 갈 경우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IEA는 만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어떤 정책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3.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구 온도가 3.5℃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5℃ 더 뜨거워진 지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일 것이다. 지난 1500만년의 어느 때보다 뜨겁고, 최종적으로는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대륙, 남극의 얼음은 물론 그 어디에도 얼음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대륙이 녹으면 전 세계의 해수면은 약 7m 상승할 것이고, 지구의 지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해수면이 7m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강변과 해변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사라진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6배에 달하며, 아파트 3층 높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 영구동토층(지층의 온도가 연중 0℃ 이하인 부분)에 갇혀 있던 대량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메탄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거나 약 두 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전 지구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소장 한스 셸린후버 교수는 **"만일 메탄이 대기 중에 유입되면 우리는 토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북극 빙하의 9.2%가 사라졌고 2026년에는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릴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구 기후의 역사를 수백만 년에 걸쳐 관찰해보면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혹은 지금과 같은 따뜻한 시기로 변화할 때 지구의 기후가 결코 부드럽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때때로 이런 기후 전환은 겨우 수십 년 사이에 세계의 기후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기후의 상태는 지구의 모든 얼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자연적인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온난화 현상이 빠르게 가속되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다.

이산화탄소

자연적인 탄소 순환은 지구의 생명 시스템의 핵심을 이룬다. 탄소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의 성장과 죽음을 통해 생물계를 순환한다. 탄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퇴적물로 땅속에 묻혀 있거나 용해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바다에 녹아있는데, 바다 속의 이산화탄소는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양의 해저에 침전된다. 그리고 탄소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로 존재하기도 한다.

지난 300만년 동안 지구의 대기는 이러한 탄소 순환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300ppm 이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세기에 걸쳐 전개된 인류의 산업 활동은 그 균형을 무너뜨렸다. 인간이 땅을 파고 석탄을 태울 때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반 이상은 땅에 흡수되거나 바다에 가라앉는다. 하지만 나머지는 공기 중에 남고 그중 일부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대기 중에 머문다. 이산화탄소의 약 25%는 1,000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10%는 10만년 이후에도 대기 중에 남으며, 핵폐기물보다 더 오래 잔존해 지구와 인류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벌목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자연적 탄소 순환에 간섭하여 간접적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증폭시켜 자연적인 탄소 순환을 방해한다. 대기 중 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기후가 따뜻해지면 자연의 탄소 저장고인 해양과 육지의 탄소 흡수 및 방출 비율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해양과 육지가 탄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않으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더 많이 남게 되고 이는 온난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보다 약 3~4배 빠른 북극의 기온 상승 때문에 시베리아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2013년 5월, 300만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됨)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다 해도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끔찍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의 진짜 의미와 마주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한국 사람의 기후 변화 인지지수는 70.28점(100점 만점)이나 행동지수는 30.85점으로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당위성을 공감하지만 생활에서 불편이나 희생을 감수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문제는 개인의 이해가 거시적인 사회 및 지구 전체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줄인다면 최악의 상황을 조금은 늦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3.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왜 때문이죠?

성장에 대한 집착

전체 이산화탄소의 40%가 기업의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다. 재료 채취부터 생산물의 폐기까지, 모든 과정 전체가 심각한 오염을 양산하는 대량생산은 인간의 활동 중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만든 것은 국가의 끝없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이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난화 대응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끝없는 경제 성장 추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높은 소득이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유한 국가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GDP(국내총생산)의 증가와 국민의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GDP는 단지 그해에 생산된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할 뿐이다. GDP에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정주부의 노동이나 봉사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10억 달러가 빌 게이츠의 통장에 저축되든, 노숙자에게 돌아가든 GDP는 상관하지 않는다. 게다가 GDP는 종종 환경 및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을 마치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둔갑시킨다.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범죄에 따른 모든 피해 금액과 경찰, 법원, 감옥 등의 비용을 GDP에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GDP를 행복의 척도라고 본다면 살인이나 환경파괴도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초창기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가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성장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희망은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장에서 발생한 높은 소득으로 많은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어냈지만 성장에 대한 집착은 근대화 이전의 토테미즘[14]과 다를 것이 없다. 그 중심을 들여다

14) 토테미즘: 원시공동사회 종교의 한 형태이다. 혈연적, 지연적 집단이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면 순수하고 신성한 종교의 허울을 쓴 세속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가난한 나라의 성장에 대한 집착은 옹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영원히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물질만능주의의 서구 사회를 그대로 답습하여 어마어마한 소비자 부대를 양성하고 있다.

소비적 자아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개에 이르는 무언가를 소비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물건은 얼마나 될까? 한국 섬유 산업 연합회에 따르면, 200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46,926,000벌의 옷을 새로 샀다고 하며, 2013년이 된 지금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옷들을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일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건 구매행위의 80%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쇼핑중독자를 일컬어 쇼퍼홀릭(shopaholic)이라는 속어도 생겨났는데 이는 알콜중독자(alcoholic)에서 따온 말이다.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알콜에 중독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수십여 년 간 소비는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변화해왔고, 이제 소비는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 국가의 정체성이 경제성장에 달려있듯이 개인의 정체성 역시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소비적 자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 자아를 표현해주는 상품을 찾는다.

1960~70년대의 새로운 사회운동은 '개인화'의 시대를 이끌었다.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문화적 규범이나 행동들을 흡수하여 사회의 대다수가 비슷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되는 사회적 자아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아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과 물질의 소비 등 외부적 보상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품의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 소비주의를 더욱 번창시켰다.

이처럼 물질로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루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비사회에서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울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성장은 더 이상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고, 불행이 성장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은 소비행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 정체성의 포기를 의미하며, 우리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다수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한 삶을 두려워한다. 단지 살 만한 기후를 유지하려는 운동일 뿐인데도, 현대의 소비사회에서는 우리가 누

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4. 쓰레기, 너 어디서 왔니?

현재 지구의 쓰레기 문제

앞에서 언급했듯, 산업화 이후 생겨난 대량 생산 시스템은 사람들의 과소비를 낳았고 이러한 과소비는 막대한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증가시켰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버리는 물건들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상상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종이는 2~5개월, 담배 필터는 10~12개월,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은 20년 이상, 가죽 구두는 25~40년, 나일론 천은 30~40년, 알루미늄과 칫솔, 1회용 기저귀는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은 **500년 이상**이 지나야 썩는다. 이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 환경 단체 '더 오션 컨서번시(The ocean conservancy)'는 2001년에 개최한 국제연안 정화행사에서 하루 동안 19,673km(경기도 전체 면적과 비슷)의 해안과 수로, 물속에서 거두어들인 쓰레기가 무려 3,475종류나 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를 늘어놓으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5배 이상이며, 일회용 컵과 접시, 포크, 나이프, 숟가락 같은 피크닉 용품은 4인 가족이 6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나들이 갈 수 있는 분량이었다. 또한 셔츠와 바지, 신발, 모자는 17,121명에게 줄 수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는 363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 쓰레기들을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지구 둘레의 1.5배에 해당한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전체 온실 가스의 15~20%**를 차지한다. 그리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효과가 21배나 크다. 또한, 자치도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전 세계 다이옥신 중 69%를 배출하는 주범이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유독물질 중 가장 맹독성의 물질로 분류되며, 청산가리보다 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최신의 여과 장치를 갖춘 소각장에서도 다이옥신이 소멸되거나 중화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이옥신이 소각과정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물질, 플라스틱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소비하는 플라스틱은 98.2kg이다. 이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지금 이 발제문을 쓰고 있는 노트북, 마우스, 충전기, 옆에 있는 스탠드, 거울, 볼펜도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 대량생산 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현재 전 세계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썩는 기간도 가장 오래 걸린다. 평균적으로 플라스틱은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채로 남아있으며, 땅속에 묻힌 플라스틱은 물과 흙에 유독물질을 방출한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는 연간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4~5조 개**에 달하는 비닐봉지가 폐기되고 있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 지대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이다. 북태평양의 쓰레기 구역 17곳에서 50회에 걸친 수거작업을 했지만 다른 환류구역에서도 쓰레기 구역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구역을 합치면 바다의 40%, **지구표면의 4분의 1**에 달하는 크기이다. 오늘날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동물성 플랑크톤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6배나 더 많으며, 매년 약 **6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북태평양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었다가 식도가 막혀 죽고, 100만 마리의 바닷새와 물고기들이 부스러진 플라스틱을 먹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가 가득차서 굶어 죽는다.

플라스틱 제품의 40%는 수명이 한 달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일회용품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비닐 포장지는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1분 만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5%에 그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 하나가 지구에서 사라지기까지는 500년 이상이 걸린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지구곳곳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들에 뒤덮이게 될지도 모른다.

전자쓰레기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자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자제품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자제품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제품들이 버려지면 인체와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전자쓰레기가 된다.

전자쓰레기에는 중금속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폐기를 할 경우 다른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보다 훨씬 환경과 인체에 해롭다. 전자쓰레기의 소각은 독성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공기 중에 확산시키는 위험한 일이다. 매립도 마찬가지로 수질 및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전자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이들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써 거의 모든 생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데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에 농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전자쓰레기는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된다. 각자의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가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이를 금지하려는 바젤협약이 1995년 제안되었지만 그때 태어난 우리가 19살이 된 지금까지도 비준되지 않았다. 쓰레기가 수출되는 마을의 사람들은 납, 카드뮴에 노출된 채 살아가며, 오염된 강 때문에 수돗물도 마시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유독한 가스를 먹어가면서 전자쓰레기를 처리한다. 이 문제는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다.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달한다. 하루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1,237톤**,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410만여 톤**으로 8톤 트럭 1,400여대 정도이다. 또한, 구매 식자재 중 버려지는 음식물이 20%에 달하는데 이는 1년에 가구당 75만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 중 1/7이 버려지고 있으며 연간 약 18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로를 통해 강물을 썩게 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침출수로 인한 하천수와 토양, 지하수의 오염과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매립지 가스는 악취, 폭발과 해충 번식 등 보건 위생 및 안정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또한 땅속에서의 자연 분해에 따른 지반 침하로 매립지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음식물쓰레기와 수질오염의 관계

식 품 명	1cc 당 오염농도 (BOD, mg/l)	이정도 버린다면 (ml)	1급수(BOD 1.0mg/l)로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톤)
우유	103,500	180	18.6
요구르트	100,500	60	6.0
사이다	51,500	350	18.0
콜라	40,000	350	14.0
오렌지쥬스	62,500	350	21.9
라면국물	18,800	200	3.8
수제비국물	2,600	200	0.5
된장찌개	56,000	200	11.2
간장	83,000	1,000	83.0
식용유	135,000	1,000	135.0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가 남기는 음식들을 못 먹어서 지금도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은 3초에 한 명씩 굶어죽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8톤 트럭 1,400여 대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환경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다.

5. 지구를 지키고 나도 지키며 살아가는 법

에코 이코노미

지구 환경의 위기는 경제 시간의 틀에 생태 시간의 틀을 끼워 맞춰 넣고, 삶의 기반인

생태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리는 사태다. 순환과 재생이 불가능한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지속 불가능한 사회경제이다. 예컨대 지구 온난화란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속도가 그것을 동화, 흡수하는 지구의 느릿한 속도보다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경제 시간을 위해 탄소 순환이라는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멸종은 환경 변화에 생물이 적응하기 위한 필요 시간을 주지 않은데 따른 급속한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의 주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다는 데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가속화하는 경제시간에 떠밀려 생물 고유의 시간이 단축되어 버렸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결과들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나 공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생태 시간이 따라갈 수 있도록 경제 시간을 어떻게 감속시켜, 이 둘의 시간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 시간의 충돌을 피하고 양자 사이에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코 이코노미**(에콜로지+이코노미, 경제가 환경에 일부라는 사고로의 전환을 뜻함)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은 지구를 죽이고 있다. 205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에 옮기고, 인간과 지구 양쪽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1.소비

끊임없는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낳고 이는 대량 폐기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다. 사람은 1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엔 1000만원을 만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일까? 과연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소비행위는 타자와의 경쟁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나와서 비과시적 소비를 하자. 살아가면서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지금 내가 사는 것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자.

☺허영과 낭비의 상징인 과대광고를 거부하자.

☺유행에 너무 민감해지지 말자. 유행을 따르는 것은 사회로부터 주입 된 욕구와 나의 욕구를 혼동하는 것이다. 트렌드를 뛰어넘는 개성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지금 안 입는 옷이라고 함부로 버리지 말자. 패션은 돌고 돈다. 10년 후 당신을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줄지도!

☺배가 부를 때 장을 보자.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이성을 잃는다.

☺대량생산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시도하자. 중고매장이나 벼룩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벼룩시장 깨알정보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
전국 녹색가게 운동 협의회(www.greenshop.or.kr)
블링 플래툰 나이트 플리마켓(www.thebling.co.kr)
서울시 재활용 나눔장터(http://fleamarket.seoul.go.kr/)

2.물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다. 20세기의 전쟁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수압을 낮춰서 사용하고 목욕은 간단히 하자.

☺시판되는 생수는 사 마시지 말자. 페트병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그들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폐수를 유독물질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친환경적인 목욕제품과 세제를 사용하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에도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양치할 때는 꼭 양치컵을 사용하자.

3.음식

먹는 것은 환경문제의 중심주제이다. 한국의 푸드 마일리지는 1천 500억(톤/킬로미터)으로, 세계 2위라고 한다. (푸드 마일리지는 자신의 식탁에 놓인 음식물이 얼마만큼의 석유를 사용하여 얼마나 먼 거리에서 이동해 왔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북대서양에서 잡은 참치는 7천 킬로미터, 호주산 쇠고기는 5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석유로 움직이는 다양한 이동 수단에 의해 운반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커피, 바나나, 자몽, 청포도 대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를 먹자. 석유를 태워가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온 식품은 환경을 망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고기, 끊을 수 없다면 줄이기라도 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 것(축산업)은 최악의 환경문제다.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한다. 중남미의 열대림이나 아열대림의 대규모적인 파괴는 소고기 생산을 위한 목초지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배달음식이나 외식 대신 집에서 해 먹자. (자취왕 꿀키 블로그를 가보셈!)

☺남기지 말자. 한 끼도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충분한 감사를 느끼자.

☺패스트 푸드와 편의점 음식은 먹지 말자. 한 번의 편의를 위해 지구에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고 우리 몸에도 엄청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4.에너지

☺안 쓰는 플러그를 뽑자. 낮에는 되도록 전등 스위치를 꺼두고 햇빛을 이용하자. 대기전력만 효과적으로 줄여도 1년에 한 달은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냉장고는 냉장실만 사용하자. 냉장고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프레온 가스를 유발한다.

냉동식품은 몸에도 안 좋고, 얼려두었다가 버려지는 식품도 많다.

☺TV를 없앨 수 없다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정해서 최소한으로 보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TV 시청시간은 4시간 정도라고 한다. 그 시간동안 좀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대신 두 다리를 이용하자. 걷는 것은 건강과 지구를 위해 정말 좋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자전거를 타자. 자전거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탄소배기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매년 300만 명의 생명을 빼앗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자전거를 못 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면 카풀을 하자. 카풀을 할 수 없으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타자. 그리고 비행기 여행을 줄이자. 간단하다.

(tip: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나 정차 시 시동을 끄지 않을 때 기어는 중립에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4% 감소하며, 이것은 소나무 8,92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세탁기는 빨래를 잔뜩 모아뒀다가 한 번에, 그리고 아침에 돌리자. 이른 아침에 세탁기를 돌리면 굳이 건조 기능을 쓰지 않아도 된다.

☺드라이클리닝은 되도록 하지 말자!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물과 석유, 전기 에너지, 그리고 세탁소에서 옷에 씌워주는 비닐까지 4종 세트로 소비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자.

☺겨울에 보일러를 틀 때는 낮은 온도로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어두는 것보다 온도를 높게 틀어 한 번에 방을 확 덥힌 다음 끄고 서서히 식히는 것이 좋다.

☺건전지 대신 충전지를 사용하자. 충전지 하나의 사용으로 일회용 건전지 1,000개를 대체할 수 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을 모두 떼자. 냉장고에 자석을 붙여 두면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말고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자. 닫기 버튼을 한 번 안 누르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5.일회용품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자.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는 수줍게 텀블러를 내밀자. 한 해에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은 120억 개에 달하고 종이컵 생산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3만 2천 톤이다. 텀블러 하나로 수백, 수천 개의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인용 수저를 들고 다니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달음식을 사먹을 때도 일회용 젓가락은 빼달라고 하는 센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쓰이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25억 개이다. 이 정도 분량에 쓰인 나무라면 남산 26개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지 말자. 종이컵 내부의 코팅이 높은 온도의 액체와 만나면 환경호르몬, 발암물질이 녹아 나온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 돈 주고 암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지퍼백은 빨아서 쓰자.

☺장보러 갈 때는 꼭 장바구니를 챙기자. 비닐봉지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주범이다.

☺비닐 포장된 제품보다 종이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자. 비닐은 썩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리지만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개월이면 자연 분해된다.

6.쓰레기

☺분리배출은 기본이다. 캔이나 병, 우유팩은 재활용률이 높으므로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짓이다.

☺젖은 쓰레기는 소각할 때 다이옥신을 마구 배출하므로, 쓰레기는 꼭 말려서 버리자.

☺닭이나 지렁이를 키우자! 닭과 지렁이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배설한 분변토는 화분에 좋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가게에서 필요 없는 샘플을 받지 말자.

☺쓰기 시작한 화장품은 유통기한 안에 꼭 다 쓰자.

☺다 쓴 화장품 용기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 돌려주자.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설거지를 시작하자. 설거지를 끝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세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침투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됐을 때 세제를 머금은 사료가 되고, 세제를 머금은 사료를 먹고 자라는 소, 돼지, 닭고기는 결국 우리 몸으로 되돌아온다.

6.결론

지금까지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속되는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안정과 번영, 문명화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왔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변했고, 지금까지와 같은 번영의 밑바탕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어쩌면 지구의 기후 재앙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은 어쨌든 온난화와 그 영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일반제품, 일회용품 쓰지 않기, 전기 사용 줄이기, 인스턴트 줄이기 등의 실천을 하는 것을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지구, 환경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실천방안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거창한 일도 아니다.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구는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런 영향도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구는 우리 개개인의 작고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가 지구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나가야 한다. 이런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다. 귀찮음과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지켜야한다. 넋 놓고 있다가 인류 최후의 순간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는 것만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토론거리

-강의를 듣고 난 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는 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약속 정하기)

끝!!!!!!!!!!

MEMO

초청 강의

/ 안재홍 쌤 /

MEMO

MEMO

MEMO

역사

이송헌
문장훈

대표도서 : 청산하지 못한 역사
_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_이덕일

<청산하지 못한 역사>

부제: 식민사학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1. 개요

1) 역사의 정의
2) 역사와 인문학
3) 역사교육의 필요성

2.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식민사학
2) 이병도
3) 프랑스의 매국노 청산

3. 교학사 교과서 문제

1) 잘못된 사실관계
2) 출처 불명 이미지 사용
3) 일제의 친일행적 미화
4) 이승만 미화

발제자: 이 송헌

1. 개요

1) 역사의 정의

역사는 19세기 말 서양의 히스토리(history)라는 용어의 번역어로서,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 또는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역사라는 용어에는 4가지의 개념이 있다. 첫째,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다. 지구의 역사, 군대의 역사라고 할 때의 개념과, 역사가 오래된 학교라고 칭할 때의 개념이 이에 속한다.

둘째, 과거에 기록해 놓은 기록물을 뜻한다. 예컨대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을 역사라고 칭할 때와,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라고 구분할 때의 개념이 그 경우이다.

셋째, 역사학을 의미한다. 이는 사학이라고도 한다. 연구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연구·서술하는 학문이란 개념이 그것이다. 넷째, 철학적 개념, 추상적 개념으로 과거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할 경우와, 역사의 죄인이라든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역사를 창조한다고 할 때의 용어는 이 개념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 중에서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할 경우, 과거 및 현재의 인간이 지적·예술적·사회적 활동을 한 산물의 총체 및 부분을 역사라고 한다.

2) 역사와 인문학

역사가 인문과학인지 사회과학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사람들 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대 학문에서 역사학은, 특히 연대기가 초점이 될 때는 점차 사회 과학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사건을 통해 미래를 전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인문과학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3) 역사교육의 필요성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다. 최근 역사교육문제가 대두되면서 축구경기 응원 플랜카드에서도 이 문구를 찾아 볼 수 있을 만큼 이 한마디 문장은 유명해졌다. 허나 정작 단재 선생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를 독립운동 했던 곳으로 알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 주소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낮은 역사의식이 언론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 및 도발 그리고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 편찬문제로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로 거론 되는 주요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역사교육의 필요성이다.

역사적 지식은 올바른 민족적 정신을 가진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를 왜곡 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의감으로 분노만 할 뿐 타당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분노 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와 그 국민은 이렇듯 국가의 자주성을 잃게 된다.

또한 역사적 지식은 인간의 시야를 인간의 시야를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역사라는 학문은 여러 사관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통찰력, 그리고 관점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관계성, 역사의 사례, 역사적 지식을 함양하게 된다면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주관을 확립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다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근거 없는 선동과 여론몰이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안목을 통한 자신의 정치적 주관이 또렷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갖추게 해야 하며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

2.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식민사학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올바른 역사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이다. 허나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역사가 과연 올바른 역사일까? 그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식민사학이란 일제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항일민족의식의 성장을 막기 위해 시행된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사 연구의 총칭이다. 일본의 조선침략을 정당화 하고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들을 대 일본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 일본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창씨개명을 통해 먼저 조상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국민을 식민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본총독부 조선식민통치사 중=

1910년 한국을 강제 합병한 일제는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하여 한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어용학자를 동원하여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했다.

조선사편수회는 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학교) 사학과와 함께 일제하 한국사 왜곡의 총본산이었다. 특히 사학과 교수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로 초빙해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조선사편수회에서 민족의식 말살, 열등감 조장을 목적으로 간행한 "조선사"의 기획과 편집을 도맡았다. 이들은 실증사학의 이름아래 식민지 민중의 현실을 외면하고 고대 중세사 연구를 통해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고 일제식민통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타율성론- 타율성론은 한국사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발전과정을 부정한다. 즉 북쪽은 중국세력이 지배했고 남쪽은 신공왕후[15]의 정벌을 전후하여 수세기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남선경영설', '임나일본부설'이 그것이다, 이 논리는 고대사뿐 아니라 이후까지 적용되어 한국사는 외세의 의한 타율적인 역사가 진행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선사관- 만선사관은 한국과 만주가 태곳적부터 민족, 영토, 경제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써 한국사의 독자적인 발전과 한국의 독자적인 지배영역의 존재를 부인하며 나아가서는 일제의 만주지배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 만선사관은 식민주의 사관의 중요한 부분인 타율성론을 만들어 냈다.

일선동조론- 한민족과 일본의 조상이 동일했다는 주장 따라서 한일합병은 태고에 일본의 신이나 천황이 한국을 지배 하고 있었던 사실의 역사적 재현이며 역사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 주장한다.

반도적성격론-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주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연유하는 것을 설명한다. 한국의 자주성을 말살함으로써 일본침략을

15) 제14대 추아이천황[仲哀天皇]의 황후(皇后)이자, 제15대 오진천황[應神天皇]의 어머니이며, 삼한(三韓)을 정벌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현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워지고 있다.

정당화 하는 이론이다.

정체성론– 한국사회의 내적발전을 부정하는 논리로, 한국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봉건사회가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당파성론– 고대부터 최근세까지 파당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단결해 보지 못한 것이 한국역사의 특징이라고 왜곡하는 주장이다. 민족분열정책에 이용했다.

2. 이병도

이병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친일, 식민사학자로써 조선사편수회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주역이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지식인들이 일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된 것이다. 허나 그는 독립 후에도 여전히 학자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그들의 식민지 사관은 현재 대한민국 역사의 정설이 되었다.

①이병도

1896년 8월 14일에 태어났다. 경기도 용인 출신이다. 본관은 우봉 호는 두계이다 1909.3 한성 보광학교에서 수학한 후 1910.3 사립 중동학교를 졸업했다. 1912년3월 일본인이 세운 불교 고등학원 예비과를 수료했고 다음 달 보성 전문학교 법률학과에 입학해 1915.3 졸업했다. 졸업하던 해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다음해 7월 까지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 문과를 수료했고

두 달 후인 9월 와세다 대학 문학부 사학급사회학과 에 들어가 1919년.7 졸업했다. 처음에는 서양사를 전공코자 했으나 당시 일본사의 권위자였던 요시다 도오고와 쓰다 소우기치의 영향을 받아 조선사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귀국해 1919년 10월부터 1925년 8월 까지 경성 중앙고등 보통학교 교원으로 지냈다.1920년 7월 김억, 나혜석 염상섭 등과 잡지 폐허를 창간한 후 동인으로 활동했고 1922년 12월에는 염상섭, 오상순 등과 문인회를 발기해 창립했다.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에 임명되었다. 1927년 5월 수사관보를 그만두고 촉탁을 맡아 1938년 6월경까지 활동했다. 조선사편수회 1925년 6월 조선사료의 수집 ,편찬 및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하기위해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선총독부 직속기구로 조선사 편찬 등을 통해 식민사학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허나 독립 후 이승만 대통령 시기 반민특위법 해제로 그는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학부장, 1946년 9월 학제 개편에 따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로 발령받아 1961년 정년퇴직할 때 까지 재직했고 , 서울대학교 부속 박물관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과 행정대학원 원장, 국민대학교 학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에 선임된후 1988년 4월 고문으로 추대 되어 사망할 때 까지 재임했고, 1962년 8월 무궁화장을 비롯해 5.16민족상과 학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이렇듯 이병도라는 친일파는 해방 후에도 학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지켰고 그의 학풍은 고스란히 서울대로 전해져 현재 대한민국 역사를 축소, 왜곡, 날조 하고 있으며 그러

한 배경에서 식민사관, 독재자찬양,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기술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편찬 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수 있다.

3. 프랑스의 매국노 청산

한국에서 친일파 진상 규명 등 과거사청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독일의 나치 통치를 겪었던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독일에 점령되었던 각국이 독일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국인 독일조차도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등을 통해 나치지도부를 숙청했다. 서독이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서방국의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각국에 큰 피해를 준 나치 전범을 철저히 사법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나치 협력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영국에서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이끌던 드골은 프랑스 국내의 반나치 저항운동을 지휘하고 연합군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나치 독일과 싸웠고, 1944년 8월 25일 폰 콜티츠 독일군사령관이 항복하면서 수도 파리가 해방되자 개선장군으로 입성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이 완전히 탈환된 것이 아니어 제헌의회를 구성할 수 없었지만, 드골은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방된 지역에서는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드골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의 반역자, 나치 협력자들의 숙청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들이 종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당시 나치 협력자로 규정된 사람은 다음 3가지였다.

①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②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잘못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추종자
③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 사람

드골이 나치 협력자 청산에 있어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렸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은 도덕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지식인과 작가는 사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

을 물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끈 사람은 천재 대학교로 유명한 파리고등사범 출신(에꼴 노르말) 작가이자 언론인인 브라지야크로, 그가 1945년 1월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는 36세에 불과했다. 그의 재판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프랑스가 낳은 보기 드문 인재라는 프랑스인들의 인식 때문이지만, 그가 프랑스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검사로부터 더욱 큰 질타를 받았다.

검사는 “보통 사람의 배반보다 브라지야크와 같은 지식인의 배반이 수백 배 더 나쁘다”고 논고하며 그를 단순한 나치 협력 배반자보다 더 악질인 지성적 반역자로 규정했지만,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의 사형선고에 찬성하면서도 그의 ‘천재성’이 안타깝다고 사면을 바랐다는 점이다. 특히 브라지야크는 파리에서 철수하는 나치 독일군을 따라 독일로 도망치자는 제의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연코 거부하고 자수했으므로 국민들의 호감도 받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레지스탕스 운동과 저항언론을 주도한 카뮈조차 나치 협력자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감형탄원서에 서명하여 드골에게 보냈다. 그러나 프랑스 지식인 59인이 서명한 진정서를 받은 드골은 그들의 탄원을 기각했고, 브라지야크는 사형선고를 받은 지 약 2주 후에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렇듯 파리 해방 직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응징된 나치 협력자들은 모두 언론인들과 작가 등 지식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드골이 처음부터 지식인들을 숙청 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치 협력자 숙청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비판여론이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잠재울 수 있었다.

시효가 없는 나치협력자 청산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나마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드골 시대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1964년대에 자국 형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을 병합해 국가반역죄와 반인권범죄 및 인종차별범죄에 관해 시효가 없이 체포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반인도적 범죄란 ‘정치적, 인종차별적 및 종교적 목적으로 시민을 살해, 몰살, 노예화 및 유형에 처하거나 고문하는 등 박해를 가하는 범죄’로 정의되는데, 이 법은 서유럽 선진 민주국들이 모두 자국 형법에 편입시켜 일반화되었다고 주섭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은 설명했다.

그러므로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정부는 1983년 레지스탕스 영웅 장 물렝을 고문 살해한 리용 지역 나치 게슈타포의 바르비를 남미 볼리비아에서 체포해 재판했다. 바르비에게는 프랑스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으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98년에는 비시 정권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이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비시 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드골의 집권 후에도 현

직에 그대로 머물렀었으며, 오히려 랑드 주지사로 승진까지 했다.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하에서는 예산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과거의 그의 행적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그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요청에 의해 유태인을 추방하는 문서에 파퐁의 서명이 계속 발견된 것이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물론 시효가 배제되는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의 나이 90세였다.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의 답변은 역사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배반자들을 '외세와 내통한 이적죄'와 '간첩죄'를 적용해 대담하고도 대단히 가혹하게 심판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반나치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좌·우파 정치인과 애국적 시민들로만 새로운 주체세력을 형성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인 프랑스 국가를 건설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새로 이끌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념 문제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좌파든 우파든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세력을 총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나치 협력자들이 프랑스 내에서 근거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3. 교학사 교과서 문제

1. 잘못된 사실관계

교과서 편집규정 상 문제,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이 100건 넘게 발견됐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지적한 단적인 사례를 보자.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 (교학사 교과서 22쪽)

『후한서』 등 사료를 보면 부여가 한반도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하다.

2. 출처 불명 이미지 사용

교과서 집필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자료를 대거 사용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 발표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가 인용한 사진 561개 중 327개의 출처가 포털이었다. 교학사 교과서 필자 중 한 명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자

료의 출처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며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료를 보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출처는 당연히 고려대상이다.

3. 일제의 식민지배 미화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식민통치덕분에 한국의 근대화 됐다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한 반면 위안부 문제 등 일제의 만행은 축소해 기술했다.

'이제 자급자족적 변화가 일어나고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었다.'

'자본주화의 진전은 더욱 정확한 시간 개념을 요구하였다. 학교와 공장을 물론이고 철도, 우편, 전산망 등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갔다.'

게다가 친일파인 최남선, 장덕수, 김성수 등의 친일행위는 누락하거나 미화했다.

'최남선은 공(功)과 과(過)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또한 명성황후를 일본의 표현인 민비로 표기하는가 하면 왜? 일본은 민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며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를 옹호하는 듯 한 내용을 기술했다.

4. 이승만 미화

교학사 교과서는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독립운동 활동을 과장해 국민적 영웅으로 둔갑시켰다.

독립운동을 다룬 분량의 약 3분의 1에서 이승만 내용이 나오지만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5단원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이승만의 사진은 5장 수록 되지만. 백범 김구는 1장, 윤봉길 의사는 단 1장의 사진도 수록 되지 않았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경찰이 반공 등의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고, 이승만은 이를 '묵인'했다며 소극적인 기술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승만이 반민특위에 불만을 가지고 '좌익반란 분자 색출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선 안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한 사실을 봤을 때, 역사왜곡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미검증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한국역사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네 개 단체가 '교학사 역사 교과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고 중대한 오류만 298곳이 있음을 밝혀냈다.

MEMO

초청 강의

/ 방학진 쌤 /

MEMO

MEMO

MEMO

정치/제도

라윤희
문의겸
정광

대표도서 : 국가란 무엇인가
_유시민
파시즘 /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_로버트 팩스턴 / _한만수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_이상이 외 5명

-파시즘-

-광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모이려는 욕구가 있다.
일단 모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탄생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에 포함된 개인의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집단 내에 속해있는 것만으로 그 집단의 사고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즉 조직이 만들어지면 개인은 어떻게든 작아진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종교의 믿음, 이러한 집단적 사고가 매우 강해지면 집단내에 속한 개인의 의지는 사실상 소멸한다. 이때부터 집단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집단을 움직이는 건 상위 1%의 지도자 계층이다. 그러므로 집단이 강해질수록 권력계층의 힘은 강해지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자유의지는 약해진다.
이 집단의 항구적인 지속을 위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외부의적 2.내부의 희생양
외부의 적은 적에 대항해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쓰이며. 내부의 희생양은 그 희생양에게 조직의 모든 불합리와 모순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집단의 생명력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파시즘이란?

팩스턴의 좀 더 정교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에너지,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정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윤리적,법적인 제약없이 폭력을 행사 하며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또한 파시즘은 부정의 사고 행동 체계이다.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입증하려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시즘은 이념적으로 좌우의 기존 질서에 모두 반대한다. 파시즘은 어떤 타자들 때문에 국가가 쇠퇴하고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파시즘은 민주주의 원칙을 경멸하고 조롱하며 마르크스주의적 평등주의와는 본디부터 척을 졌다. 게다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도 파시즘에겐 눈엣가시와도 같다. 또한 물질주의를 반대하는가 하면 국제주의에도 생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많은 적들을 창조해놓고선 대중의 공포를 조장한다. 자본주의 질서의 파탄에 따른(세계대전으로 인한)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선동하고 이들의 공포에 편승한다. 거기에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과 헌정 질서의 불안정, 그리고 파시스트 행동대들이 길거리에서 자가 발전한 테러의 공포를 확산하면서 대중의 마음속엔 믿을 거라곤 그래도 강력한 지도력 밖에 없다는 '대안부재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대중은 무질서를 파시즘적 질서로, 민주적 비효율을 신속한 결정

으로, 이성을 의지로, 국론 분열을 국민 통합으로, 평등주의를 위계적 리더십으로 대체하겠다는 파시즘의 선전선동에 너무도 허망하게 넘어가버린다.

이렇게 원칙 없는 타자 부정의 사고 체계만으로 대중을 흡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시즘은 끊임없이 어떤 독특한 상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과시했다. 모든 '이즘' 중에서 파시즘만큼 특징적인 행동과 행태에 매달린 이즘도 없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인가?

파시즘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주요 전제조건은 개인의 자유, 이상, 자연스러운 인류의 조화, 진화에 대한 믿음이라는 자유주의의 신념에 맞섰던 19세기 후반의 반발이었다.

파시즘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대부분사람들은 주저 없이 파시즘은 이데올로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사상의 태도와 패턴을 처음으로 조합한 사상가들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세계의 다른 거대한 정치체제처럼 파시즘도 하나의 이즘(체계화된 정치이념)일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즘 들은 정치가 교양인의 일이었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상대방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하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끈질기고 학구적인 의회토론을 거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고전적인 이즘들은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그 이즘들의 강령을 검토함으로써 설명하는 것 이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파시즘은 대중정치 시대에 급조된 새로운 고안물 이었다. 파시즘은 세밀하게 연출된 의식과 감정이 가득실린 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서에 주로 호소했다. 파시즘은 분명 정교한 철학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지않다.

대신에 지배민족과 그들에게 할당된 부당한 몫과 약소민족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대중의 정서를 기반으로 삼았다.

고전적인 이즘과는 전혀 달리 파시즘이 올바르냐하는 문제는 그 명칭에서 먼저 나타나는 명제의 진리성과는 무관하다. 즉,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화론적 투쟁속에 다른 민족들과 함께 갇힌 상황에서 선택된 인종,민족,핏줄의 운명이 파시즘을 통해 실현되는 한에서 파시즘은 진리 인 것이다. 초기 파시스트들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란, 진리를 왕좌에 앉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한 싸움은 단순히 껍데기 만을 위한 싸움을 의미할 뿐인가? 이데올로기를 판단할 때 독특하고도 효험있는 심리,역사적 가치에 입각해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물론그렇다. 이데올로기의 진리는 이상과 행동을 향해 인간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소진시킬수 있을 때에만 그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으로 진리다.)

새롭게 탄생한 파시스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택된 민족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리인 것이다.

파시즘은 독트린의 진리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역사적 운명과 지도자 사이의 신비적 합의에 의존했다. 파시즘 지도자는 국민들을 한층 높은 정치 영역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과 역사적 운명과 힘을 완전히 자각한 하나의 인종에 속한다는 격양된 느낌,거대한 집단적 창조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흥분,(집회) 서로 공유하는 느낌의 물결 속에 푹 잠겨서 전체의 선을 위해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 따위를 잊어버리게 해주는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지배자가 됐다는 느낌이 일으키는 전율을 그야말로 육감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려고했다. 파시즘은 이성적인 논쟁을 직접적인 감각의 경험으로 교묘히 바꿔침으로써 정치를 미학으로 변형시켰다.

직접적 배경

1차 세계 대전은 파시즘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기보다는 파시즘이 탄생할 수 있는 문화,사회,정치적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화적으로 볼 때 전쟁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전망이 불신 당하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인류의 조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정에도 의혹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전쟁은 불안에 떠는 퇴역군인들을 양산했는데. 이들은 낡은 법이나 도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분노와 환멸을 표현할 길을 찾아나섰다. 또 정치적으로 전쟁은 기존의 제도 –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간에 – 가 지닌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긴장을 야기했다.

파시즘의 발생과 전개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투사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파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14년 말 좌익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곧 이 세력에 합류하게 될 사회주의의 이단아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쏟을 때 자신들이 벌이는 운동의 열정과 결속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파쇼 리볼루치오나리오 다치오네 인테르벤티스타 (정치참여를 위한 혁명동맹) 라는 단체명을 사용했다. 이름을 얻으면서 하나의 존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파시즘의 시작은 매우 분명하다. 파시즘은 1919년 3월 23일 일요일 밀라노에서 탄생했다. 그날 아침 참전 퇴역군인과 전쟁을 찬양하는 생디칼리스트, 미래파 지식인, 언론인, 단순 가담자 등 약 1백여 명 이상의 군중이 산세폴크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밀라노 상공업연맹 회의실에 모여 민족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산세폴크로 광장의 모임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권력을 잡았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 독일에서 또 다른 파시스트당이 정권을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독재자를 열망하는 목소리와 자신들이 무솔리니나 히틀러처럼 권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무리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그리고 6년후 히틀러는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 전쟁이 끝나기 까지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광기로 전례없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만 전쟁의 야만을 겪게 되며 민족 전체와 문화, 기억마저 말살시키려는 조직적인 대량 학살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한창 세력을 떨치던 때의 파시즘은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물어, 그 이전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사적인 영역을 크게 줄였다. (일부 평자들은 사적영역을 모조리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야 말로 파시즘의 핵심이라 여긴다.) 파시즘은 시민권의 행사를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에서 지지와 순응을 위한 대규모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서 공동체의 이익 밖에서는 개인이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게 했다. 또 완벽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과 국가의 권력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파시즘은 그때까지 유럽에서 전쟁이나 사회 혁명 중에만 나타났던 공격적 감정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파시즘 이전의 독재자가 민중이 광장에 나오는 것 에 본능적인 공포심을 느꼈다면, 파시스트들은 오히려 민중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집단적 열정을 조직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보수파 엘리트층과 파시즘과의 관계

파시즘 선전원들은 사람들이 꼭대기에 우뚝 선 지도자만을 보아주기 바란다. 이 점에서라면 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나로 결속된 권력이라는 이미지는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라는 거대 조직을 대하면 서 느꼈던 경외감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관찰자들은 파시즘 독재 체제가 단일하지도 않으며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홀로 군림하는 독재자는 없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군, 경찰, 사법기관 등 통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과 강력한 사회,경제적 세력의 협조내지는 (적어도) 묵인을 얻어내야 한다. 파시즘이라는 특별한 경우, 새 지도자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힘을 빌렸던 보수파 엘리트층을 마음대로 팽개쳐버릴 수 없다., 기존 보수 세력과 권력을 적어도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파시즘 독재는 그 기원, 발달 단계, 행사 과정에서 스탈린 독재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파시즘 체제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파시즘 운동이 무르익어 권력을 진지하게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파시스트들은 기득권층과 깊이 공조하게 된다. 물론 이탈리아와 독일의 보수층이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여러 번 묵과해준 것은 사실이다. 선거와 폭력적 위협을 통해 파시스트당과 나치당이 무시 못 할 세력을 성장하자 보수세력 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 을 내려야 했다.

보수파 지도자들은 특히 파시즘을 자기편으로 흡수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주변세력으로 돌려보낼 것 인지 결정해야 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보수파 국가 지도자들은 좌파로부터 민중의 지지를 빼앗으려는 파시스트의 폭력을 묵과함으로써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했다. 양국의 민족주의 신문과 보수파 지도자들은 파시스트의 폭력과 좌파의 폭력에 대해 계속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

파시즘 운동은 헌정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혁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흔들리던 엘리트층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했다. 파시즘은 폭 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보수주의자들은 결코 용인할 수 없었던 좌파세력의 도움 없이도 의회에서 과반수를 구성해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파시즘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머릿수 이상이었다. 파시스

트들은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구 엘리트층에 지쳐가던 대중 앞에 새로운 젊은 얼굴들을 내세웠다. 이탈리아와 독일 국민들은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했고. 파시스트들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파시스트들은 또한 새로운 소속 방식 –보수파들이 사회적 유대가 와해되는 사태를 우려하던 시대에 필요한 헌신과 규율을 제공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바는 한국에서도 여러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보수우파와 파시즘 세력간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대변화를 두려워 한 보수 엘리트들의 비겁함과 좌파를 막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거꾸로 된 사고방식이 파시즘을 초래했다는 진단은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홀로코스트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특히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과정에는 두 가지의 상황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그 처음은 2차 세계대전 개전일부터 시작되어 회복 불능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 작업이었다.

오래전부터 나치 우생학 이론은 열등한 인간들의 제거를 인종주의적으로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해왔다. 전쟁은 부족한 자원을 축내는 쓸모없는 입을 줄이는 것을 정당화할 더 큰 구실이 되어주었다.

계획적 학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상황 변화는 각종장애,비상사태,위기의 등장이었다. 그런 사태 때문에 점령지 행정관들은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여기게 됐다. 모스크바 점령 실패는 동유럽 점령지의 유대인을 모조리 소련 내륙으로 추방해버릴 수 있다는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커다란 장애였다. 심각한 비상사태는 다름 아닌 독일군의 식량 부족이었다. 애초에 독일군 전략가들은 현지 주민들이 대시 굶주려야 한다는 충분히 알면서도 침공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지의 식량 조달량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자 쓸모없는 입 색출이 시작되었다. 나치 행정관들의 비뚤어진 눈에는 유대인과 집시가 쓸모없는 입인 동시에 독일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쳤다.

이렇듯 불어나는 문제들에 직면한 나치 행정관들은 일련의 중간적 해법을 개발했다.

한가지 해법은 게토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게토는 질병의 온상이자 예산을 끝없이 소모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인 군비를 생산시켜보려고도 했지만 또 다름 쓸모없는 입 다시 말해 노동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이었다. 또 하나의 중간적 해법은 이미 언급했듯이 유럽의 유대인들을 마다가스카르나 동부 아프리카. 혹은 러시아 내륙으로 몰아넣으려던 계획이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

렇듯 중간적 해법이 모조리 실패하자 유대인 말살이라는 최종 해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이히만

이러한 해법들의 총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에서 체포되어 9일 후에 이스라엘로 압송. 예루살렘 지방법원으로 재판받기 위해 이송된 뒤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피고 측이 피고로 하여금 무죄 주장을 하게 한 이유는 피고가 당시 존재하던 나치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가 기소당한 내용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공식 행위 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 주권국가는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 복종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고 세르바티우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는 이기면 훈장을 받고 패배하면 교수대에 처해질 행위들을 했을 뿐이라는 것 등이었을 것이다.

최종해결책을 추진하면서 나치스는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언어규칙을 만들었다. 이 언어규칙이란 학살이나 유대인의 이송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법을 만들어 대신 사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살은 최종해결책,특별취급으로, 유대인의 이송작업은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 등으로 불렀다. 이러한 언어규칙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구별되었다. 후자는 히틀러로부터 유대인 학살에 대한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로 이른바 비밀을 가진 자 라고 불렸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일상의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자신들 간에도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다. 그 효과에 대해 아렌트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상과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오랜 정상적인 지식과 동일시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 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문제처리에 본질적이었던 아주 다양한 많은 협조체재를 이루어갈 때 그들은 질서와 제정신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수 있었다. 여기서 말이 하는 역할은 실재: 즉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준다. 나치스가 언어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말은 현실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아이히만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악의 평범성 이라는 개념의 의미로 이야기 될 수 잇는데 아렌트는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적 파시즘

총선(2000)이 끝났다. 지역주의의 성벽은 생각보다 강고했다. 건강한 시민의식에 대한 호소는 뻔뻔한 지역 주의적 선동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적어도 영.호남의 경우 경상도사람과 전라도 사람이라는 사투리의 정체성이 시민이라는 민주적 정체성을 대체했다. 좀처럼 참담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절정에 오른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폭력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중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새삼스러운 깨달

음 때문이다. 총선연대로 상징되는 건강한 시민의식의 다른 한켠에는 파시즘의 민중적 기반이 상당히 두텁고 우리의 일상적 삶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총선의 진행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특징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지역이기주의가 천연덕스럽게 공존하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다. 희생자인가.공범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세미나와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동독-근대적 독재? 라는 학술대회 등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노멘클라투라의 독재권력이 민중들의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합의독재 개념으로 압축된다. 민중은 독재권력 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공범자 였다는 통렬한 자기비판이 그 밑에는 깔려있다.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폭력적 지배가 독재권력 의 한 축이었다면,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자발적 동의도 독재권력 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폭력적인 통치체제인 나치즘이나 스탈린 체제조차도 힘에 의한 억압뿐 아니라 민중의 자발적 동의를 어느 정도 전제했다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101경찰 예비연대 병사들의 대부분은 열렬한 나치 당원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각지에서 소집된 평범한 독일 아저씨들 이었다. 나치즘의 사회적 기반은 소수의 광신자들이 아닌 바로 이들 평범한 독일인들 이었다.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구미의 시민들이나 박정희를 복제하고 싶은 인물 1위로 뽑은 한 명문 사학의 대학생들,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뿌리치지 못하는 평범한 시골 농민들, 이들 모두는 합의 독재의 기반이다.

어느 면에서 폭력은 권력이 의존하는 최후 수단에 불과하다. 권력은 정신과 일상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에 까지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 사고와는 달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생활양식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합의 독재가 빌붙이는 사회적 기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중들의 삶속에는 권력을 거부하는 자율적 세계와 더불어 교육과 언론. 다양한 상징조작 등 을 통해 권력이 위로부터 주입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내적식민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독재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독재를 지지하는 모순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민중적 삶의 이율 배반성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권력이 이식한 지역주의라는 내적 식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속에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주의의 이성적 논리가 민족주의의 감정적 선동 앞에서 무력했듯이 한국의 진보진영은 권력이 이식한 지역주의라는 내적 식민지의 완강한 성채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권력의 내적 식민지인 지역주의 라는 성채를 공략하지 못하는 한 독재와 파시즘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의식과 관념은 실재의 반영이지만 또 동시에 실재를 구성한다. 제국주의가 강제한 식민지 규율체제. 뒤이은 분단과 냉전. 한국전쟁이 결과한 반공규율 체제, 유신독재와 1980년대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생긴 집단심성은 한국사회의 결을 이루고 있다. 시민사회를 규율화 시키는 이념적 도구인 반공주의,전체주의적 심성과 위계질서를 구조화하는 언어생활, 청소년 시절부터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 시키는 학교교육, 군사화 된 생산 현장

과 회사조직, 카드섹션처럼 일사불란한 학생운동.사적이해를 공적으로 포장한 의리에 죽고 사는 정치문화 여성을 내적 식민지로 만든 가부장주의,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약자와 소수자를 타자화 시키는 가부장적 혈통주의... 파시즘의 집단심성이 한국 사회의 결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수없이 많다.

일상생활은 혁명,민족,민주 등의 추상적 신화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의 영역이다. 그것은 하찮지만 견고하다.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일상을 구성하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하고 무기한적인 삶이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추상적 신화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그 견고한 생활양식을 읽어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제 문제는 신체에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저 발된 권력으로서의 군부 파시즘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더 이상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에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 장치로서의 파시즘이다. 나는 그것을 일상적 파시즘 이라 부르겟다. 일상적 파시즘은 전체주의 체제로서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는 존재양식을 달리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체제의 배후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전통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타성들, 설명하기 힘든 본능과 충동들 속에 천연덕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일상적 파시즘은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정치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지배하는 매우 교묘한 악.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집단적 강요에 휩싸이는 것이 특징이다. 맹목적 반공교육,애국교육 등으로 무장하여 문제가 된다.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않는 규율, 일상적 파시즘은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장치를 뜻한다.

군대속의 파시즘

군대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권위주의를 체득, 심적인폭력(맹종의 강요)과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짐.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도덕적 평가라도 내릴만한 인간성마저 파괴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맹종학습의 의무로 바뀌었다는 것. 군대가 양심 따위의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완전 해방된 조직사회형 인간들을 양산함으로써 파시스트적인 국가의 최대교육기관 역할을 했음을 직시해야함. 이러한 군대에서 구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군대에 대한 지배층의 실제적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나라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한국의 보수 정객들과 재벌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평상시에 상전을 위해서라면 비자금 조성이든 세금탈루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충복' 이고 유사시에 아무런 생각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동족을 쏘아 죽일 수 있는 강인한 애국자 이다. 출세를 위한 맹종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는 인간 로봇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군대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주문 사항이다. 그리하여 인간 존엄성의 개념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반발심 등의 불필요한 심

적 현상을 졸병의 마음에서 일소시켜 버리는 것이 군대의 주요 의무가 되는데, 이러한 교육적 과제를 물리적이 폭력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대다수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유와 존엄성을 지향하지만, 이러한 자유 지향적인 본능들보다 신체적 통증에 대한 기피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는 반사작용을 졸병에게 강요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구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언어속의 파시즘

규범적 인간을 만드는 언어

글자를 틀리게 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웃는 사람들은 웃음의 이면에서 나도 틀리게 읽으면 조롱거리가 되겠지 하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일까? 언어가 규정해 놓은 표준적 체계라는 전체 안에 편입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는 생각 때문이리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상징체계가 만들어 내는 전체주의 윤리관이 죄의식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문자 타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언어가 체계인 이상 모든 언어에는 이러한 속성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한 기실 우리는 파시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파시즘은 언제나 상징체계에 의존한다. 사상이나 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나 데모에서 요란한 구호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펼쳐지는 손짓.몸짓의 유희가 늘 동원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란한 유희 속에서 개인의 욕망은 유희의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 속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희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들은 체계의 윤리관을 그대로 재현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개체들은 상징체계에의 편입여부에 따라서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어떤 한 개인을 판단할 때에 그가 속해 있는 체계와 기호 체를 먼저 보려는 경향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체가 체계에 의해서 판단된다면 대립하는 주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같은 체계 안에 있기 마련이므로 여기서 싸우는 놈들은 둘 다 똑같다. 라는 이른바 양비론이 등장한다. 양비론이란 타자들의 이해와 분노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대신 자신이 화평의 메신저가 되는 일종의 착취 논리이다.

언어의 형태

대학의 엠티, 자기 소개시간 학생들은 인사의 첫머리를 몇몇 학번 아무개입니다 라는 천편일률적인 포맷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숫자로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교도소 체제도 아닌데 왜 이름 앞에 학번이라는 숫자를 꼭 달아서 천명해야 할까? 이 두자리는 다름 아닌 입학 연도인데 입학 연도의 숫자가 자기소개 포맷의 앞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두자리 숫자를 비교한 후 숫자가 순열 적으로 앞서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해라체로 말투가 바뀌는 것을 보면 분명히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라캉의 저 유명한 명제인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 된다.를 상기하게 된다.

즉 무의식에 각인된 기호와 이미지는 관념 내에 존재론적 의미를 구축하게 되므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대로 무의식은 자연히 그렇게 구조화되고, 따라서 현실과 세계는 언어의 구조대로 변별되고 생성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현실을 찍어 내는 거푸집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깐 위계질서로부터 받는 압박의 원천을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위계/서열상으로 높거나 앞선 분의 직분 또는 호칭 뒤에 님 자를 붙여 부른다. 우리는 흔히 호칭의 대상이 신분이 높거나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님 자를 붙여 부른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은 님자 때문에 높은 분도 생겨나고 존경받는 분도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 체계 내에서의 계급은 그대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계로 전이되고, 이 위계는 다시 학번과 같은 순열적 숫자로 치환되는 것이다.

존대어법의 규칙은 실제 사용에서는 문법성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금기라는 특수성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존대 어법에 대한 범칙은 현실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은 곧 금기를 범한 불안과 내용적으로 같은 것이다. 속된 말로 야.자. 한번 잘못 써서 벌어지는 갈등과 또 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나 의 정체성은 개인의 이름보다는 호칭과 촌수 사이에서 분열되고 또 부유한다. 우리가 누구를 지칭할 때 이름으로 가리키기보다는 형 누나,언니,동생, 등으로 부르고 나아가 남을 부를때에도 선생님,선배님,사장님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의 이름구조는 체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계의 수형도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의 주체와 정체성은 자연히 수형도를 구성하는 체계 텍스트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속에 예속된다. 이러한 구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우리는 전체주의 윤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누구를 비난할 때 처음에는 개인의 잘못을 집중 성토하다가 상대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저항하면 으레껏 너 뉘집 아들이야? 로부터 시작하여 너 무슨 과야? 또는 더 나아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 등과 같이 상대가 속해 있는 체계 텍스트를 들먹이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즉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 시키고 논리성의 피안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초논리적 논리가 바로 전체주의 윤리인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것은 전체주의 윤리에서 중죄로 분류된다. 윤리를 범한 자는 체계의 낙원에서 따돌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누구든지 체계 텍스트를 들먹이면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번의 두 자리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와 여기에 함축된 무의식적 메시지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학과의 체계 안에서 좌표 00의 위치에 있으며 또한 체계의 윤리를 비교적 잘 지키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의 좌표보다 순열 적으로 앞에 계신 형,누나들을 깍듯이 잘 모실 테니 나의 좌표보다 뒤에 있는 동생들은 나를 잘 모시기 바란다.

결국 존대 어법의 형태는 상호 품앗이가 아닌 상하 품앗이의 형태를 배태한 거푸집으로 기능한 셈이다.

일상생활, 규율권력

1942년 당시 10살의 소년이었던 움베르트 에코는 파시스트가 주관한 청소년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글짓기 주제는 무솔리니의 영광과 이탈리아의 불멸 적 운명을 위해서 라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가. 였다 에코 자신의 표현을 빌면 그는 이 질문에 거만한 수사로. 그렇다고 답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에코처럼 거만한 수사는 못되지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맹세할 것을 굳게 다짐한 우리의 정답 또한 어린 에코의 대답과 일치한다. 학교 규율을 동원하여 이 초라한 수사를 어린학생들에게 외우도록 강제했던 인격화된 정치권력은 가고 없지만. 그의 의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일상적 파시즘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전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것의 재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있다. 근대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도입된 이래. 학교 교육은 사회 구성원을 권력의 요구에 따라 재생산하는 기제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상징의 구조는 권력의 사회 문화적 통제 원리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선택된 지식뿐만 아니라. 교실 내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배우게 된다. 그 규범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문제아. 학습 지진아 등의 이름으로 타자 화 되어 배제 된다.

아직 우리 안에도 애국주의, 반공주의, 유교적 권위주의가 남아있다. 류현진. 롤드컵 우승. k팝 열풍 등에 열광하며. 우리는 어떻게 파시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1.우리안의 전체주의는 무엇일까?

2.아이히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검열을 검열하라

라윤희

0. 왜 이 주제를 골랐나
1. 검열이란?
2. 한국의 대중문화 검열 제도
3. 왜 반 검열인가
3-1. 검열의 사례
3-2. 청소년을 위해? 권력을 위해!
3-3. 수면 밑의 검열, 자기검열
4.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하는가
5. 결론과 대안

0. 왜 이 주제를 골랐나

까놓고 말하자면, 아청법 때문이다.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2011년 새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의도는 좋은 법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호한 처벌 기준[16]으로 인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등장인물이 나온 책이나 영상 등을 성인인지 아동인지, 음란물인가 예술인가를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만든 이와 감상한 사람 역시 성범죄자로 도매금 쳐 죄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법이다.

하위문화에 관심이 많던 나는 이로 인한 자기검열 등의 나비효과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민간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국민에게는 정부의 주장대로 자정능력이 부족해서 각종 외설물과 폭력적인 매체, 각종 선동에 노출되면 노출되는 만큼 부도덕적으로 타락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공감 받고 나아가 우리들의 인식부터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택했다.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나는 검열이라는 것이 의외로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고, 쉽게 우리를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비해 우리들은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신경조차도 안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강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검열에 대해 알리기 위해 강의를 결정하게 됐다.

1. 검열이란?

16) **아청법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2조 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하략)
동법 2조 4항의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하기 전에 우선 검열의 사전적 의미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검열은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을 말한다. 넓게는 국가보안법, 집시법부터 사소하게는 인터넷에서 셧다운제, 욕설과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것. 음반의 가사 검열, 영상물이나 게임의 등급분류제, 국방부의 불온서적 등 일반 대중에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아예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단 대중문화 검열뿐만이 아니라 유신 독재시절 있었던 미니스커트 단속, 두발 규제 역시 검열에 포함된다.

2. 한국의 대중문화 검열 제도

한국의 대중문화 검열제도는 주로 사후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1999년 발족. 영화, 뮤직비디오[17], 공연물, 광고 등을 사전심의. 이용등급을 분류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 2006년 영등위에서 분리. 각종 게임물을 사전 심의한다. 이용 등급을 분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8년 설립. 유해사이트 차단과 방송통신프로그램, SNS 등을 사후 심의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1997년 발족. 각종 서적의 유해성 여부를 사후 심의한다.

여성가족부 – 2010년 발족.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매체물(영상, 게임, 음반, 공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포함)과 인터넷을 사후 심의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등이 산하로 속해있다.

3. 왜 반 검열인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유해한 것만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먼저,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 중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 법칙에 의하여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선 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권력의 검이 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산업과 예술의 발전을 막게 된다. 우선 검열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3-1. 검열의 사례

3-1-1. 대중 문화 검열

시민들은 데이트를 갈 때 영화관에 가고, 볼일을 볼 때 책을 읽고, 출퇴근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TV프로그램이나 웹툰을 본다. 그만큼 대중문화는 이름만큼이나 시민들에게 친숙하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중문화를 검열하고 있다. 국민들,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하여 선정성, 폭력성, 불온사상 등의 요소에 집중하여 심의를 하고 있다. 이른바 문민정부에 들어섰던 1990대까지만 해도 검열의 수위는 높았다. 동성애를 포함

17) 2013년 12월 사후 심의제로 변경예정 http://bit.ly/1dtdzkF

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한 영화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영화는 물론, 조금이라도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으면 바로 상영금지처분을 받았다. 특이한 가면으로 유명한 스크림(1996) 역시 그 잔인함 때문에 금지처분을 받았으며, 왕가위의 해피투게더(1997)도 동성애 요소로 금지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천안함 사고의 음모론을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2013)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나 기각되었으나 보수단체의 협박으로 개봉 이틀 만에 상영 금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18)]

이런 불온사상에 관련해서 1961년 제작된 오발탄의 경우도 유명한데, 주인공의 정신 나간 늙은 어머니가 자꾸만 '가자!'라고 외치는 것을 '(북으로) 가자'는 메시지라며 여러 차례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어이없는 사례는 이제 없을 것 같으나 현대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음반에서는 더더욱 자주 보이며, 그 유명한 일례로는 아이돌 동방신기의 미로틱(2008) 레드오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아이돌 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미로틱의 가사 중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Red ocean'의 레드 오션을 처녀막으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Crystal'의 크리스탈을 정자로. 'I got you– under my skin'을 너에게 반했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아닌 성행위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창의적으로 해석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 타당하지 못한 판정에 당시 동방신기의 소속사이던 SM엔터테인먼트는 처분 취소 소송을 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취소 받았다.[19)]

이것은 5년 전의 사례지만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SM 더 발라드의 곡 '내일은.'을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했다. 이에 대응해 해당 가수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여성부는 명확한 심의기준 없이 '내일은.'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여성부의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1년에 여성부는 위와 같은 4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금까지도 애프터스쿨, 싸이 등 가수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 소비자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인판정을 받게 될 경우 노래가 전파를 탈 수 없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이 한 곡이라도 실린 음반은 아무리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노래가 많더라도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18)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 이틀 만에 '상영 중단' http://bit.ly/18QwpKL
19) 동방신기, 국내최초 유해판정 뒤집기 승소했다 http:/bit.ly/1fZAFhu

최대한 성인판정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결코 정당하다고 보기 힘든 심의로 인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고소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아무리 중요한 가사고 아무리 심오한 가사더라도 음반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판매금지 처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포르노 산업이 불법[20]이기 때문에 성인이 보는 것이더라도 포르노라고 간주되는 경우 바로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이, 음란물인가 예술인가에 대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확히 기준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대 예술이 난해함으로 인하여 사기 취급을 받고 있긴 하나 명백한 예술 작품이다. 헌데 판사가 아무렴 공명정대하다 할지라도 예술과 음란물을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성기의 구체적인 묘사? 여성의 음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세상의 근원'은 세기의 명작으로 칭송받고 있다. 성행위의 난잡함? 난잡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애당초 정상적인 성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준조차 확립하기 어려운 이상 음란물과 성인콘텐츠의 구분을 짓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3-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국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해 2인 이상이 모여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다. 평화적인 1인 시위라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공장소에서 하는 시위만 허가를 받는 것이고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법은 명백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애초에 시위라는 것이 국가에게 시민의 말을 들으라고 항의하는 것인데 국가에 대한 항의를 국가에게 우선 심의 받으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4.19 혁명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허가제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집회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정한 장소에서 먼저 집회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이를 악용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유령집회도 여러 번 열리고 있다. 유령집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에 신고한 노조 시위 중 전체의 44%가 유령집회에 해당하고 있다.[21] 기업만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도 유령집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노조 측에서 이용하고 있든 기업 측에서 이용하고 있든 간에 집회 허가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 헌법 1조에서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헌법 21조 2항에서도 '언론·출판에

20) 형법 제243조, 제24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제73조, 제74조.
21) 서울지역 노조 신고 집회 44% '유령집회'http://bit.ly/1g5llCP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등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3-1-3. 인터넷 검열

인터넷은 자유로운 토론과 담론의 장이자 정보의 바다다.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그렇기에 어찌 보면 반국가적이다 못해 반인류적인 발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열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세계는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게시물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한 사전검열과 국가에 의한 사후 검열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은 어린아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지만 인터넷 검열의 큰 문제는 아예 접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블로그와 SNS의 경우, 그 개인이 운영하는 특성상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은 일기 성격을 띤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며, SNS 역시 그 탄생부터가 일기의 성향이 아주 짙고 블로그에 비하면 폐쇄적이다. SNS를 검열하여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기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옳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를 명백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본다.

음란하거나 도박성을 띤, 아니면 국가안보 등 법률을 위반하는 게시물이 있다고 제보 받았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시킨다. 다수결이 얼마나 폭력적인 방법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 아닌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사이트 이용자는 물론 운영자에게조차 사전 통보는 커녕 차단이 되어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조치가 취해진다.

이것은 인터넷 검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열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있으면 안될 발언 따위는 없다. 가치가 없는 발언도 당연히 없다.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 의하여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지려 할 때 장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은 호수 같은 거다. 호수에는 멋진 물고기, 새, 꽃만 살 수 있냐. 미생물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법학자 박경신 씨도 이렇게 말했다. '사실 미생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살아야] 한다. 미생물이 살아야 생태계가 기능하여 물고기, 새, 꽃이 사는 것이다. 표현도 호수 같은 생태계이다. 똥 얘기도 자유롭게 주고받는 문화 속에서 그런 두뇌들의 소통 속에서 셰익스피어도 꽃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살인범들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가볍게 놀려 한 사람의 목숨을 뺏은 것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러한 욕설조차 법률로 금지하고 검열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뿐이다.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할 일이지 정부가 먼저 판단해서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3-1-4. 사상검열

한국에는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빨갱이"다. 한번이라도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그는 영원히 악질 범죄자이며 매국노이며, 독재자의 밑핥개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조롱하고 외면한다.

빨갱이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생긴 것일까? 나는 국가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선생이 제자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비극을 겪었기에 당시를 겪은 어르신들은 그때만 떠올리면 몸서리를 치신다.

그리고, 국가는 '빨갱이'를 철저하게 탄압했다. 쌀을 나누어준다는 소리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서명했던 선량한 국민들을 죽였고, 섬의 인구 반 이상을 죽이고, 지역 하나를 파탄냈으며, 사실을 알리려 한 기자들과 학생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운동과는 전혀 상관 일반인들도 실적을 위해, 자신의 정치 라이벌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고한 시민이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살해한 '빨갱이'에 대한 분노와 자신도 빨갱이로 몰리면 국가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암담한 당시 사회에 대한 울분이 이 단순한 단어 하나에 그렇게 큰 마력을 담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사상이 위험해 보인'다고 했을 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꺼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사상을 꺼내지 못하면 정말로 의심을 사게 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엿 바꿔먹은 사회에서 과연 다양한 사상이 생길 수 있을까.

3-2. 청소년을 위해? 권력을 위해!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화두가 되자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정비하는 추세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아청법이 바로 그 중 하나다. 아청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동기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아청법은 음란물이 성범죄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연구하여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2] 성범죄의 원인을 음란물로 몰아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의 제작자와 소비자 역시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와 해당 산업(포르노 산업이 아닌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억압했으며, 넓은 처벌 범위와 처벌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아동 포르노를 보지 않았더라도 범국민을 잠재 범죄자로 만들어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 없는 악질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동시에[23] 정작 아동 성폭행 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24]

---

2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간의 상관관계 연구 / 12.11.05 /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etrieveOriginDetail.do

23) 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http://bit.ly/15elpdy

24) 필리핀 어학연수 간 초등생 성추행한 교사에 징역 1년 6개월형 http://bit.ly/1b1jblp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포르노를 그릴 자유가 그리 소중하더냐는 이야기로 번지기 쉽지만 이 법에서 살펴봐야할 부분은 그게 아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법의 가정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욕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포르노그래피를 보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아청법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성범죄자라는 수치스러운 낙인 역시 따라오게 된다.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듯이 피해를 입어 억울하더라도 아무에게도 호소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그것은 그에 관련된 법으로 처벌해도 충분한 일이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아청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손쉽게 협박할 수 있는 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3-3. 수면 밑의 검열, 자기검열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나 자신의 주관에 따라 스스로 검열하는 자기검열은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기검열은 자신의 양심이나 상식을 따른 것이 아닌, 자기검열의 탈을 쓴 철저한 국가검열인 편이다. 방송사 사장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혀 권력에 관대한 방송만 하게 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그나마 노골적인 편이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교묘한 협박을 일삼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밖으로 내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어 하고 싶은 말을 결국 못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유용한 본보기 수단 중 하나가 명예훼손죄다,

명예훼손죄의 어이없는 점은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를 아는가? 태양이 나그네를 뜨거운 햇볕으로 코트를 벗겼다고 북풍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어도 태양이 북풍을 고소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가 있다. KBS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개그콘서트의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 코너의 진행자인 최효종은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을 풍자했지만 당사자에게 고소당했다. 이 케이스는 나중에 취하하긴 했지만 고소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를 무척 위축되게 만든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 금전적인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요소를 악용하여 질 것이 뻔하더라도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소송을 거는 행위를 슬랩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이 애용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소인은 시간과 금전을 소모하게 되고 피고소인은 점점 지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문고인 소송이 돈 있고 권력있는 자의 무기가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LAPP 금지법이 있다. 한국도 시급히 SLAPP 금지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개그는 개그맨에게 맡기고 멋진 정치를 보여달라' 고 했으나 돌아 온 것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행정지도 조치였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용감한 녀석들은 한 달 뒤 폐지되었다.[25]

화끈하고 노골적인 풍자로 사랑받던 NSL에서도 역시 '한국에서 정치풍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풍자가 사라졌다.[26] 유머조차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법처리하는 이런

25)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폐지 배후에 국정원있나? http://bit.ly/15wc9Cx

사회에서 누가 자유롭게 발언하겠는가.

지금 당장 주변만 봐도 그렇다. 충주 문화의 거리 한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외칠 수 있다면, '김정은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가? 공산주의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자본주의의 자기성찰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한층 더 성숙된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티끌없이 깨끗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긴장하고 위축된다.

자유롭게 담론해야 나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페달에 자물쇠를 걸어 잠군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기검열은 자발의 탈을 쓴 강제 검열이나 마찬가지다.

4.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쌍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며, 게임을 자신보다 못한다고 다른 플레이어의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도 괜찮으며, 일부 몰상식한 종교인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스탠드의 다름을 무기로 고인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하며 낄낄 대는 것 역시 허용해야 하는가?

내 대답은 '예'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모욕적이라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그들을 사법 처리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게 내 입장이다. 왜냐하면 모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것이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정부가 고삐를 틀어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라 국민의 자주권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사법 권할 밖의 개인이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비판과 소통을 통하여 자주적인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야 말로 검열이 필요 없어지려면 꼭 필요한 자정작용을 자리 잡게 만드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국가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수록 대중을 다루기 쉬워진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한다는 이름하에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셈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가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의 힘을 쥐고 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우선 국가에게서 검열의 손잡이를 뺏어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검열의 손잡이를 국가에게서 빼앗아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겨우 검열의 손잡이를 빼앗아왔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시도를 관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국가에게 맡겨버리

---

26) SNL코리아 "풍자 중요하지만 사정 여의치 않아" http://bit.ly/1fJ5Yu8

거나 아니면 맡긴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부터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와 국가의 권력 독점 사이의 줄다리기를 끝내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6. 이야기 해보기

우리 주변의 검열은 무엇이 있을까
사법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마녀사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대중을 의식한 자기검열은 대중에 의한 검열일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욕설을 법률로 규제해야 할까
심의 권한을 자율심의기구, 민간단체에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까

< 의료 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이름:문의겸

1부 우리나라 의료제도 파헤치기.

01.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

-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02.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01.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 의료민영화의 의미

02.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론

- 의료민영화 찬반론

03. 의료민영화 해외 사례

- 상반된 의료정책 국가 비교

04. 민간 의료보험의 실태

-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지급률은 얼마나 될까
- 보험기간이 완료되면 보험금을 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보험, 과연 가입자들에겐 이득일까, 손해일까
-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가입한 암보험, 노후엔 감당할 수 없다.
-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국민, 암보험이 아닌 예방과 조기검진을 해야 한다.

05. 의료민영화, 우리 서민들에게 닥쳐올 영향은 어떠한가?

- 사회보험, 민간보험의 차이
- 민간 의료보험으로 전면화 된다면

06. 현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은?

- 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

3부.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지켜라.

01. 의료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 내가 지향하는 의료복지

02. 의료민영화의 대안방안

- 의료비 부담, 가계 파탄을 해결하는 길
- 건강보험의 공공지출을 늘리기만 하면 의료비 걱정 확 줄일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확충하여 무상의료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 인문학 캠프 주제, 의료민영화를 선택한 이유

의료라는 주제는 많이 낯설고,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운 주제였으나 관심이 있는 만큼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의료라는 폭 넓은 주제 가운데에서도 의료민영화에 관해 관심이 기울었다. 진주의료원 사건과 식코라는 미국의료민영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민영화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우리에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나의 공부 방향은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할 권리가 과연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만약 보장 받을 수 없다면 그의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 속에 답을 찾고자 했다.

1부 우리나라 의료제도 파헤치기.

1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관한 계념과 체계를 소개하기 위함, 또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국민에게로부터 어떠한 해택을 주고 있는지 파헤쳐보기 위함.

01.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

–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국가의료제도란 국가가 국민보건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제도를 뜻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해 어떠한 제도로 이뤄져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의료법**에 관해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엄격하게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이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 소유 병원이다. 의료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이 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뜻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의 법 정신은 **의료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투자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민건강보험의 의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동시에 저소득층은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큰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02.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래로 1977년 이전까지 공적 의료재정체계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의료이용은 완전히 개인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 자원을 개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의료이용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로서는 당시 기아선상에 있는 경제 능력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런데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전된 1970년대에 와서도 민간 중심의 의료자원개발은 계속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적 입장은 1960년대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개발독재 정치세력은 국가 주도형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중화학공업(특히 화학제품의 원료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석유 화학 공업) 중심의 재벌경제체제에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1990년에 들어야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낮은 보장성 수준으로 인한 국민의료이용의 전반적인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현대와 삼성 일가가 대규모 재벌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등 산업자본 또는 금융자본의 병원진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료공급의 고급화 경쟁이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제공체계는 치료중심, 고가의료장비 중심, 과잉 진료, 급성 치료 병상의 과잉,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제도적 취약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구조화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는 국가의료제도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조건인 의료제도의 형평성, 효율성, 포괄성, 지속성, 책임성 등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제에도 아직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병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국민들은 그에 따른 높은 의료비 지출 등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정책을 탐구하고, 의료민영화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함.

01.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 의료민영화의 의미

의료는 즉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의미이다.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합치면 의료에 관한 법적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들에게 이전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의료와 관련한 병원, 보험, 제약사 등에 있어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상 복지라는 항목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02.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론

– 의료민영화 찬반론

(반대)

– 의료비의 폭등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모두 보험진료를 받을 수 있

는 그러한 제도가 폐지가 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그렇게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된다면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건강보험 환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병원들의 출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료 양극화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 또 커지는 빈부격차

민간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를 이용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고급의료 채택이 가능하며 여유 없는 자들은 채택의 자격도 없이 고급의료의 꿈만 꾸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 영리병원의 목적 이윤창출 단 하나

영리병원이란 쉽게 말해 주식회사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법인만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여 국민의 질병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의 설립은 목적이 불순한 이윤추구의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증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험회사는 개개인의 병세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험사가 늘어날 경우 자연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개인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찬성)

– 기업발전과 나라발전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양자가 같이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술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발전과 나라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서민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면 된다.

– 신약개발투자 및 신기술개발투자의 밑거름 마련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외화보유량의 증가와 의료산업발전에 투자금보유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선진화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도입을 통한 수입증가로 신약개발투자 및 신기술개발투자의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지출 막을 수 있다.

의료민영화에 의한 의료고급화를 통하여 개인사업 및 의료관광의 수입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고한다. 그럴 경우 현재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받을 예정인 우리나라 환자들을 국내에서 치료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것은 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자본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영리병원의 목적의 이윤추구는 병원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

영리병원의 뜻 자체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의료시장에 영리자본을 가진 영리병원을 내놓음으로써 병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 부유층과 서민에게 다 도움 되는 것

민간보험을 통한 부유층의 투자는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당연지정제(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과 의원, 약국은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말이다.) 폐지는 우리나라 법 조항을 통해 폐지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의 근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존재 하는 한 서민층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 경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03. 의료민영화 해외 사례

– 상반된 의료제도 국가 비교

(공공형 의료제도)

공공형 의료제도로써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영의료제도(NHS)가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스웨덴이라 할 수 있고, 국영의료제도란 간단히 자본주의국가 보건의료제도 가운데서도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들은 대개 공공병상 비율이 90%가 넘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또한 영국과 스웨덴은 87.1%와 84.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아도 영국과 스웨덴의 의료제도는 공공형 의료재정체계라 할 수 있다.

(시장형 의료제도)

그와 상반된 의료제도 국가는 시장형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는 제한적,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모부자 가정, 저소득층에게만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적용되며, 민간보험은 제도의 특성상 소득이 낮은 계층,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장형 의료제도이나 특성이 다른 체계)

한 가지 더 미국과 같이 의료민영화를 두고 있지만 특성이 다른 한 국가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06년 민영화를 단행하여 민간보험사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국민이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운영 보험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민간 의료 보험사들은 정부가 정해준 기본 건강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병력이나 나이 등으로 환자를 차별할 수 없다. 즉 이 제도는 **정부가 규정한 보험을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04. 민간 의료보험의 실태

– 민간보험,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지급률은 얼마나 될까

여기 홈쇼핑이나 라디오 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L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이 하나 있다. 이 암보험 상품의 실제 예측 지급률을 분석해보자.

이 암보험 상품에서만 40세 남성 1,000명이 동시에 10년 동안 가입한다고 가정하여 40세 남성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1만 6,200원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험기간 안에 암에 걸리면 4,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보험회사가 1,000명의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 수입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수입 = 1,000명 곱하기 16,2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 19억 4,400만원

이제 보험회사가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할지를 알면 된다. 이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준다. 1,000명 중에 10년 동안 몇 명이 암에 걸리게 될까?

이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세 가지가 있다. 국립암센터의 암등록 자료, 암발생률 자료,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자료인 암발생률 자료이다.

암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40세 남성 1,000명 중 10년 동안 19.1명에서 암이 발생한다. 발생률 자료를 적용하면 23.9명, 보험회사 자료를 적용하면 26.4명에서 암이 발생한다.

암등록 자료대로 1,000명 중 19.1명에게서 10년 동안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19.1명에게 4,0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10년간 지급해야 할 총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지급보험금 = 19.1명 곱하기 4,000만원 = 7억 6,400만원

이 암보험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지급률= 7억 6,400만원/19억 4,400만원= 39.3%

즉 보험회사는 거둬들인 보험료의 39.3%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다. 보험회사는 모든 암에 대해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먼저 암으로 지단이 확정되는 않는 이상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 환자가 아니다. 말기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조직검사를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의사는 암으로 등록을 해주지만 보험사는 암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진단이 '확정'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첫 2년 동안에는 50%만 지급해준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급률은 30%대 중반으로 떨어진다.

19억의 보험료 수입 중에 7억 정도만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12억은 고스란히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불어 남은 몫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까지 추가로 챙길 것이다.

어쨌거나 암 진단을 받은 당사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암 진단 시 4천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구에 쉽게 현혹된다. 더욱이 한 달에 1만 6,000원 정도라면 기꺼이 부담할 만하다고 여긴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전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암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 보험기간이 완료되면 보험금을 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보험, 과연 가입자들에겐 이득일까, 손해일까

앞에서 분석한 암보험을 '순수보장형' 상품이라고 한다. 보험기간이 완료된 후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순수보장형 암보험 상품에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지급률이 40%도 안 된다는 것에 더 안타깝다.

그런데 보험료가 덜 아깝게 보이는 암보험 상품도 있다. 암 보장도 받을 만큼 받고, 보험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낸 보험료를 되돌려준다는 보험 상품이다. 이런 보험 상품을 '만기환급형' 보험이라고 한다. 얼핏 생각해도 순수보장형보다는 만기환급형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보장을 못 받을 경우 전부 되돌려준다고 하니 말이다.

낸 보험료를 다시 되돌려준다는 보험이 과연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지 분석해보자. A생명회사의 암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암보험 역시 암 진단 시 4,000만원을 지급해준다. 이 상품의 보장 내용은 앞에서 분석한 L생명보험사의 상품과 똑같다. 단,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순수보장형, 낸 보험료의 50%를 돌려준다는 50% 만기환급형,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는 100% 만기환급형이 있다.

이때 상품별로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는 각각 1만 7,200원, 2만 9,200원, 6만 8,000원이다.

만기환급형의 보험료는 매우 비싸다. 낸 보험료를 되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장받을 보험료 외에 나중에 돌려받을 보험료를 추가로 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지급률이 높으니 가입자 입장에서 더 나은 상품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100% 만기환급형의 경우, 가입자가 30년 동안 내야 할 총 보험료는 2,448만원이다. 30년 동안 1,000명 중 78명이 암 진단을 받고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다행히도 암 진단을 받지 않은 922명은 30년 후에 보험료 전액인 2,448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30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0년 후 우리 사회가 매우 안정되어 매년 3%씩만 물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년 후 2,448만원의 가치는 982만원으로 하락한다.

차라리 만기환급형 대신에 순수보장형 암보험에 가입하고, 남은 5만 800원을 매달 저축한다고 치자. 연 복리 4%인 정기예금 상품에 넣는다면 30년 뒤 무려 6,053만원이 된다.

–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가입한 암보험, 노후엔 감당할 수 없다.

보험 광고를 보면 마지막에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는 멘트가 나오는 경

우가 많다. 이 광고를 하는 보험은 갱신보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10년납 갱신형 상품'은 10년간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년 동안 보장받는다는 의미이다. 10년 동안 보장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장을 받으려면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시에는 새롭게 위험률을 평가하여 다시 보험료를 경정하는데, 이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은 마치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즉, 오르더라도 보험료가 조금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실례를 보자. 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암보험의 보험료 예시이다. 암 진단 시 5,000만원을 보장해준다. 이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해서 80세까지 보장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암보험 상품을 보면 가입 시 연령에 따라 보험료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가 대략 2배 이상씩 증가한다. 이 암보험은 8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30세 남성은 9천원을 보험료로 내고 10년간 보장받은 후에 다시 갱신해야 한다. 그때는 40세기준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험료는 2배 조금 넘게 오른다. 50대가 되면 보험료가 또 다시 2배 이상 오른다. 계속 갱신해서 80세까지 보장받겠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민간 의료보험은 철저하게 개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한다. 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발생률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남성의 경우, 40세 미만에서 암발생률은 매우 낮아서 3.5%에 불과하다. 남성 전체 암 발생 중 75%는 60세 이후에 발생한다. 나머지 25%만이 60세 미만에서 발생한다.

이런 기초 통계를 통해 실제로 암보험이 필요한 연령대는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0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암보험은 주로 30~40대에 가입한다. 암보험의 연령 제한은 보통 50세 정도이며, 일부만 60세까지 가입해준다.

암발생률 통계를 이용해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다면 30세 보험료는 9천원인데 반해 50세의 보험료는 5.7배에 이른다. 암발생률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60세의 암발생률 상대비는 20.2배이고, 70세의 암발생률 위험은 34배로 뛴다. 이를 추정하면, 60세에는 매달 18만원을, 70세에는 무려 3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30~40대에게 1~2만원은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도 저렴하게 느껴진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놓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암 발생률이 매우 낮아서 그런 것뿐이다. 문제는 갱신 시 보험료는 무조건 '폭등'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암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되므로, 보험의 필요성으로 따지자면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작 보험회사들은 노인들에게 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발생률이 지극히 낮은 30~40대를 주 타깃으로 판매한다.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후에도 암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퇴직하고도 비싼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을지 말이다.

–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국민, 암보험이 아닌 예방과 조기검진을 해야 한다.

암에 대해 누구든지 한번쯤 걱정을 해보았을 것이다. 국가 암 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평생 암 발생률이 37%에 이르고, 여성도 30%가 넘는다. 사망 원인 1위 역시 암이라고 한다.

더욱이 암은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병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데도 그렇다.

암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으로 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확률적으로 암 발생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되고, 그때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 걱정 이전에 보험료 부담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굳이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상당 부분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할 수 있다.

남성은 전체 암의 61.5%를 위, 폐, 대장, 간암이 차지한다. 이 중 폐암의 80%는 원인이 흡연이다. 흡연은 모든 암 발생의 20% 이상, 암 사망의 20% 이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후두암, 구강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위암 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담배를 끊기만 해도 암 발생과 사망의 2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에 비해 암 방생률이 적어도 20% 이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암은 90% 이상이 B형, C형 바이러스 감염과 음주 등으로 인한 간경화가 추정되는 원인이 된다. 바이러스 감염이 없고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자가 아니라면 간암의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연에 과음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면, 암 발생 확률은 30% 이상 감소한다. 또한 조기발견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40세 이상의 경우 위암은 2년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10년마다 검진을 권유한다. 만약 조기 암으로 진단할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이나 위절제술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예방과 조기검진으로 얼마든지 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도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험료 폭등의 값비싼 암보험이 아니라 암에 대한 대비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 보험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05. 의료민영화, 우리 서민들에게 닥쳐올 영향은 어떠한가?
– 사회보험, 민간보험의 차이

건강보험은 민간 의료보험과는 전혀 다른 운영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보험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위험분산 효과이다. 위험분산이란 개인의 위험을 다수가 나눠가짐으로써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방식은 크게 사회보험 방식과 민간보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 방식은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이며, 구성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위험을 분산하며 재원 마련 방법으로 사회연대성을 강조한다. 재원은 보험료를 걷거나 세금으로 마련하게 되는데, 개인이 병에 걸릴 위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걷을 때는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 않고, 질병의 유무도 따지지 않는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금액을, 적으면 적은 금액을 부담한다. 능력만큼 부담하는 대신에 혜택은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아이, 노인, 장애인, 주부 등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이 있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준다.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며 국가는 지역가입자 분의 절반을 부담해준다.

사회보험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재원 부담은 능력에 크기대로 하는 반면, 혜택은 재원 부담 정도에 관계없이 누리기 때문이다. 가장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혜택은 주로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누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회보험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일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큰 고소득층의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간 보험은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보험의 기본 원리는 임의 가입 방식과 위험률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질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어떤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기도 한다. 사보험은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며,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만일 높은 위험이 있는데 낮은 위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에 가입자의 위험을 평가하며, 그것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위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민간 보험이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건강하면 보험료가 싸게 매겨지고, 건강이 나쁘거나 향후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것이다. 내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은 내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과 방식은 부당하다. 개인이 가진 위험은 개인이 선택한 결과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직업을 선택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발생하면 사망이나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10세 미만의 소아는 학동기 아이들보다 훨씬 병치레를 많이 한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면역력이 미성숙해서 잦은 감염에 걸리는 것일 뿐이다.

민간 보험이 개인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층에 대한 문제이다. 노인들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에 가입하려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득이 없다는 점이다. 노후에 소득이 없는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과연 '공평' 한 것일까. 돈이 없으면 보험을 살 수가 없고, 설령 보험을 사려 해도 건강 위험 요인이 많으면 보험 가입을 거정당하는 것이 정당한가 말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정의' 의 길이라고 보기 어렵다.

– 민간 의료보험으로 전면화 된다면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10% 내외는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대신에 개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개별적 방법이란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아마도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계층에 해당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전면화 된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이 무너지고 미국처럼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령층은 소득이 없는 반면 질병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 계층으로 시장적 의료체계가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조차 노령층에 대해서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젊은 층은 미국처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이 방식을 택하면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무보험층이 양산될 것이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료는 폭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가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보장률이 현행 60%에서 50%나 40% 혹은 그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본임부담금은 각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한다.

또한 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게 되어 점차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영역을 맡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민간 의료보험료 또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 위험률에 의해 부과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민간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보험 배제나 노령층의 민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사실상의 광범위한 무보험층이 양산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대신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꼴이다.

06. 현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은?

– 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은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0% 정도에 머문 상황에서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은 의료비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 때문에 일어난다. 그 비급여의 핵

심인 3대 비급여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공약 후퇴를 넘어서 '공약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체계 속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현오석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이라 하여 노후대비용 실손 의료보험(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한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사회 연대적 방법으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사보험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두기보다 돈벌이 진료에 매진하도록 하는 정책들이기도 하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로 인한 국민적 고통은 크겠지만, 그 대가는 달콤한 자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영리병원이 된 재벌병원은 주식시장 상장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3부.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지켜라.

3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우리나라 의료복지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함.

01. 의료민영화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먼저 의료제도에 대해 생각 할 때에는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공공인가, 시장인가 하는 문제이다.

"의료를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개인의 책임이며, 의료도 일종의 상품이므로 시장질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와 사회는 자유시장이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사회적 책임이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 사회가 의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의료에 대한 지배적 철학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회가 강조하는 국가의료의 정책 목적과 방향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발제문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겠다.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옳은가?'** 아님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각자가 보험을 들은 만큼의 혜택을 보는 것이 정당한가?'**

각자의 답은 다를 수 도 같을 수도 있다. 즉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철학이 공공인가, 시장인가에 따라 의료제도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젠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에 관한 가치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 내가 지향하는 의료복지

나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의 가치와 발전이 사회연대의 가치 하에 즉 공공의료의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제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 한다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상품화 하여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상업화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나라이며, 살인적인 제도라 비판한다. 우리가 가야할 의료복지의 형태는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시 하고, 의료는 결코 상업화 시키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받도록 하는 형태의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02. 의료민영화의 대안방안

– 의료비 부담, 가계 파탄을 해결하는 길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선택진료료(특진료), 상급병실, 초음파, MRI, 비급여 치료재료비, 비급여 검사항목이다. 특히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다. 보통 중증 질환일 때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더욱이 입원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병로 부담까지 고려하면 의료비 부담이 가계를 위협할 만큼 커진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고,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 바탕 위에 100만원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의료비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병에 걸리면 총 치료비가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보장률로는 본인부담이 400만원이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가 실현되면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비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인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가 실현되면 아무리 치료비가 올라가도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건강보험의 공공지출을 늘리기만 하면 의료비 걱정 확 줄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미국의 40% 정도인데도 국민들이 느

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지출 중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은 의료비를 우리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데도 의료비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돌리기만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세 개의 호주머니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1번 호주머니**는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이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5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 **2번 지출**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되는 개인부담이다. 건강보험이 다 보장해주지 않으니 과중한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6조원 정도 된다. **3번 지출**은 민간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보험료다 2008년 전체 규모는 33조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하다. 1번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대신에 2번 개인 부담금을 줄이면 된다. 이것을 보통 좁은 개념의무상 의료라고 부른다. 무상 의료는 공짜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1번 지출이 늘어나면 2번 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1번 지출이 줄어들면 2번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둘의 합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 부담을 줄이고, 대신에 건강보험으로 모두 해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3번 민간 의료보험은 2번 지출이 부담스러운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2번 부담이 사라진다면, 민간 의료보험 지출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현재 민간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이 오히려 가계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 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에 보탬이 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 확충하여 무상의료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의 대안은 우리나라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20% 가량 늘리고, 건강보험재정을 늘려 50~60%대에 머물러 있는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약 20~30% 가량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그면 이 주장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보겠다.

우리나라 2007년 연간 국민보험재정 규모는 약 25조 원이었다. (2007년 연간 국민보험재정 규모를 예를 들겠다,) 근데 여기에 10조 원을 더 보태서 건강보험재정을 35조 원으로 늘리면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을 지금의 약 20% 포인트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만약 15조원을 더 보태서 건강보험재정을 40조 원으로 늘리면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수준은 약 83%에 달하여 유럽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에만 연간 10~15조 원을 더 투입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간 추가 투입될 10~15조 원의 약 20%는 정부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다.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약 40%정도 더 내셔야 한다. 월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가계는 월 14만 원을 내셔야하고, 월 2만 원을 부담하시던 가계는 월 2만 8천 원을 내시게 된다. 월 1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던 가계는 월 140만 원을 내셔야 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료보험비가 크게 인상되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

다. 많은 분들의 반대가 예견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미룬다면, 건강양극화와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의료보험비가 크게 인상되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방안을 통해 의료재정을 늘릴 수 도 있다. 정부재정 투입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대신 건강보험료율 인상 정도를 다소 완화하는 것 등 정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 대안을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 한다면 그동안 서민 가계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었던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대부분의 중증질환들과 입원을 요하는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완전무상의료가 달성되는 일이고, 이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 본다.

교육

강태운
김태원
노희재

대표도서 :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_김동훈
학벌사회
_김상봉

학벌 사회

목차

학벌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파탄
학벌사회, 그 문제점
학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토론
-간디학교는 학벌인가?
-교육이 왜 필요한가(필요할까)

<학벌이란 무엇인가>

-학벌의 사전적 의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학벌을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그리고 '출신 학교나 학파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자면, 학벌이란 같은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을 지시하되, 그 집단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등급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학연과 학벌

그러나 문제는 학연이 자동적으로 학벌을 낳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학연을 학벌이 되게 만드는 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학벌이 전혀 없는 나라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독일에도 대학이 있고, 출신 대학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러나 독일 대학에는 학벌이 없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파벌을 형성했을 한국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모교에 대한 애착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애착일 뿐 결코 자기와 같이 공부한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집요하게 학벌을 따지는데 독일에 가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독일 대학에서는 아무런 학벌의식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인은 왜 학벌의식이 없을까? 독일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부르지 않는다.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인츠대학 같은 3인칭

으로 부르고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반드시 독일 또는 독일인 이라고 3인칭으로 부른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집을 우리 술집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고 웃긴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학교가 무엇이기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학교, 특히 대학에서는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인들을 한순간에 우리로 만들어 준다.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에서는 학연이 학연에 의한 파벌인 학벌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리 학교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은 학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학벌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란 단순한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독특한 주체성의 표현과 실현이다. 학연이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무관심하고 중립적인 관계이다. 아무리 나와 그 사람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를 소 닭 보듯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연이 같다 해서 자동적으로 학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학벌이란 같은 학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속하여 '우리'라는 공동의 주체를 형성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학력은 속성이요 학연은 관계이다. 그러나 학벌은 속성도 관계도 아닌 주체이다. 그렇게 학연이 공동주체로 탈바꿈할 때 그것은 자립성을 지닌 사회적 실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 한국에 학벌이 생겨난 이유

우리의 전통 속에서 언제나 국가는 확장된 가족이었다. 유학은 백성이 부모를 섬기듯이 임금을 섬기고 임금은 자식을 돌보듯이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이상적인 왕도정치가 실현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런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전통사회에서 자립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없었다. 모든 개인은 한 가족, 한 가문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가족을 통해 자연적 존재가 되고, 동시에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한 개인이 언제나 특정한 가족구성원으로서만 한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유교는 국가를 거대한 가족으로 만듦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가장 친밀한 가족애 속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결속하려 했으나, 혈연적 가족애 속에 숨어 있는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가족이기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회에서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권력투쟁 역시 가족단위로 발생했으며 가문들 사이의 위세가 결정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일종의 가문의 서열을 형성하게 된다. 권력은 어디서나 독점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는 까닭에 소수의 권력집단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하여 처음엔 형식적으로 나마 모든 가문이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 가문에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의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이다.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던 전통사회의 지배 계급은 철학과 역사 문학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또는 문사였고, 주요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 과거 시험이였다. 전통사회에서 권력을 재생산하는 바탕이 가족이라면 권력을 재생산하는 형식이 학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학문과 권력이 공속하고 학문이 권력을 위한 조건이 될 때, 학문은 권력의 도구가 되고 그럴 경우 학문은 반드시 부패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학문이 시험공부로 전락하는 것이다.

시험이 권력의 관문일 때, 시험은 물신화 되고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 학문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학벌체제의 역사적 시원이 됐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개인을 자립적 주체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적 가족구조를 해체하여 고립된 개별자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근대화가 그렇게 고립된 개인에게 가족을 대신해서 그들을 보호할 새로운 공동체를 선사한 것도 아니었다. 식민지배의 수탈과 해방 후 6.25전쟁의 참화 그리고 독재정부 시대까지 국가 권력은 참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해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근대화가 과거의 가족을 해체시켰고, 다른 인륜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식민지배로 인해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제 2의 가족으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학벌이다.

학벌은 불변성과 폐쇄성 그리고 계급적 동질성으로 인해 과거의 가문의 대체물이 되기에 적합하다. 학교 출신은 변치 않으며 학벌의 구성원과 비 구성원이 명확하고 폐쇄적으로 구분된다. 대학서열로 인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계급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학문의 연구와 교수를 목적으로 삼는 대학이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리만을 추구함으로써 대학은 유사 가족으로 변모하여 학벌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대학은 대학 고유의 목적을 버리게 된 것일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학문을 배움으로써 기대하는 이익은 전문적 지식 그 자체이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대학에서 얻으려 했던 것은 학문과 상관없는 권력 이였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만들고 시험을 교육과정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왜곡된 교육열과 시험경쟁의 노예로 만들려 했고, 이런 사회적 조건 아래서, 공부해서 출세하려는 한국인의 욕구는 너무 집요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어떤 대학도 홀로 이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있어야만 대학이 존속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이 요구하는 권력과 출세의 발판이 대학의 실질적 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구성원들의 욕망에 봉사하는 한에서, 결국 대학은 확장된 가족으로 전락한 학교가 되고 그것이 학벌을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 라는 당당한 자기정립 속에서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특정한 학벌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나는 연대 출신이다' 등의 가련한 집단의식 속에서만 자기 존재의 안정감을 확인하는 나약한 자기의식이 바로 학벌의식이다. 이런 학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속하는 학벌이 큰 만큼 자기도 크다고 느끼며 작은 학벌에 속한 사람은 자기도 작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벌이 구성원의 자유로운 주체성을 도리어 억압하고 부정함으로써만 사회적 주체로 존립하는 한에서, 학벌은 공동주체라기보다는 집합적 주체이다.

그런 학벌이 자신의 자기실현과 주체성의 확장시켜주지 않고, 사람을 어리석고 부자유스럽게 만들 뿐인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학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왜냐면 학벌은 자기실현을 도와주진 않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은 확장시켜주기는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입시 경쟁의 본질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영혼을 학벌에 팔고, 그 대가로 사사로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밤을 잊고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파탄>

입시에 목숨을 걸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계급적으로 서열화 된 학벌체제이다. 서열이 높이 올라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너도 나도 최고의 지배학벌에 진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교육의 모든 병리현상도 시작되는 것이다.

교육은 보편적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인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잠자는 가능성의 상태에서 활동적 현실성의 단계로 이끌어올리는 작용인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구체적 수행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근본과제를 떠맡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전인교육과 전문교육이다. 전인교육은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다. 주로 철학교육, 도덕교육, 예술교육, 체육교육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교육이 자기실현의 기관이라면, 이제 전인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개성적인 인격체로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한다. 각자의 들어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은 충분히 분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전문적인 자기계발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육은 전인교육도, 전문교육도 아무것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 한국교육은 참된 의미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최고의 학벌을 얻고 최상의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가 되었다.

-시험을 위한 교육

교육이 시험을 위해 존재할 때, 이 지점에서부터 교육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 동시에 시험은 언제나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만 그 존재이유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이 관계를 뒤집어 버렸다. 시험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린 지금 한국의 학교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험 선수를 길러낼 수 있을 뿐이다.

시험은 자기실현을 위한 열정을 경쟁심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교육전반을 병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생각을 정답이라는 굴레를 통해 길들이고 거기 굴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온전한 전인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프랑스대학에서는 정답이 없고, 스스로 생각해야만 하는 철학시험을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시험으로 대학선발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 하다. 어떤 학벌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평생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회에서 누가 확립된 점수제가 아닌 주관적 물음과 주관적 평가를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학생들을 소란 없이 분류해 넣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들은 다른 평가방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시험 앞에서 창조적 상상력은 억압되고 학생의 사고력은 주어진 정답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학교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참된 만남의 장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자들이 있는 입시경쟁의 전쟁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이 부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쟁자의 수가 적어져 누가 경쟁자인지 명확해지고 대립관계가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상위권의 학생들은 언제나 경쟁자의 실패를 바라는 부도덕한 심리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하게 된다.

하위권의 학생들은 경쟁자의 숫자가 많고, 경쟁관계가 모호해지고 그에 따라 경쟁심리 역시 막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하위권의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경쟁심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의 결여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부패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저 자기의 출세를 위해 점수 1~2점에 죽고 사는 인간들만 길러낼 뿐이다.

-예술교육

예술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술이란 원칙적으로 학습이 아니라 유희의 대상이다.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술작품들을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적 향유의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에 종속된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위해서 모든 예술의 이론을 숙지하기만 한다.

예술작품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문학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문학수업의 현실은 어떨까? 미리 감상의 정답을 정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시고, 문학의 미덕이다.

그러나 시험문제에서의 시는 답을 정해놓고 고르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그 정답의 해석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학생들은 시를 미적으로 감상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상상력을 억압하는 부자유에 길들여진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자유로운 감상의 대상으로 만나야 할 예술작품들을 시험문제로 만들게 함으로써 미적 체험을 왜곡시키고 아이들을 도리어 예술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한국 교육의 획일성은 개성적인 재능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치기준에서부터 다양성은 없고 서열만 있기 때문에 한국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연히라도 발견된 개성과 소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주지도 못한다.

-대학교육의 붕괴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특정한 학문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모든 젊은이들이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보통 교육기관이 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학벌이 사회적 신분의 잣대가 되는 사회에서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학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족보 없는 존재 즉 천민으로 전락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학이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 대학의 문제는 여기서 생겨난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대학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재능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학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많아지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대다수 한국의 대학들은 더 이상 학문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모지들이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런 학생들이 자라서 교수가 되는 것이니, 사유할 줄 모르는 것은 학생과 교수가 마찬가지가 된다. 한국 대학의 학문은 본질적 한계에 갇혀있어 변화하기 쉽지 않다. 자기 스스로 물음을 던지지 못하는 한국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장애를 들먹이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묻는 능력을 따지기 전에 지금 대학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벌을 보고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자기 전공을 위하여 진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다수의 학생이 전공학문이 아닌 학벌을 찾아 대학에 왔으니 자기가 배우는 학문에 흥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겠는가? 결국 교수 역시 학생들의 분위기에 맞추어 강의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평의한 교양강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학벌사회, 그 문제점>

학벌사회는 위에서 말한 교육의 파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학벌사회의 수혜자와 방조자 그리고 피해자

학벌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실을 입는가, 그리고 이 학벌사회를 강화하는 세력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자.

1. 매스컴은 학벌사회의 나팔수

요즘 매스컴들은 일간지 사회면과 공중파 방송에서는 서울대 법대 등 인기학과의 합격 예상 점수 등의 기사를 내보낸다. 한술 더 떠서 연·고대, 수도원 중상위권대, 지방 국립대, 수도원 소재 대학 등 대학별 예정 점수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등 과별 점수대를 만들어 떠벌린다. 보수언론은 그렇다 해도 진보적 언론까지 똑같이 장단을 맞추는 것을 보니 더욱 절망적이다.

이미 전부터 학벌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고발한 강준만은 언론의 '대학 입시장사', '서울대 상업주의'를 조롱하면 입시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자율 결의를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학과 서열을 매기는 보도를 하지 말자. 서울대 수석 합격자와의 인터뷰 기사 이제 그만 싣자. 어렵게 진학 한 사람을 '인간승리'로 묘사하는 '미담 보도'를 그만하자. 등이다.

학벌문제는 제도의 문제 이전에 의식의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몰아간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결정적이다. 언론의 호들갑에 거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대학 입시가 전 국민의 관심사이니만큼 언론이 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은 정도가 지나쳐 대중을 부추기고 있다.

2. 사교육업자의 이권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이라는 음지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해온 것이 사교육 시장이다.

사교육 시장은 단순히 교육시장을 점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의 진학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른바 지원배치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낱 사설학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작성한 배치표가 언론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 배치표를 갖고 접수창구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학의 기획처장들이 이 입시학원에 자신의 학교 이름을 넣어달라고 로비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막강한 권한이 사교육업자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3. 학생도 인간이다

학벌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일 것이다. 이들은 아직 미성년으로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체험하는 것들은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큰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치유되지 못할 상흔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인생의 격랑을 헤쳐 갈 도전과 용기의 원천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학벌사회가 강요하는 입시교육은 삶에서 겪을 치열한 투쟁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는 학교 간 무한 입시경쟁이다.

학교의 전체적인 성적을 높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규제를 시행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발, 복장규제가 있다. 다른 것(옷이나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이런 사소한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4. 기업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학벌사회는 입시경쟁을 지나 대학생활을 거쳐 사회로 이어진다.

그간 서열화체제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비명문대 출신은 취업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상처와 좌절을 맛본다. 형식상으로는 공정하게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비명문대의 학점을 평가절하 한다든가,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보통이다.

몇 년 전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행해 학력과 학벌을 묻지 않고 사람을 뽑는 방식을 진행했었지만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되었다.

더군다나 요즘은 공개채용이 점차 없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한 수시채용, 서류면접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벌위주의 채용관행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취업과 아울러 결혼에서도 학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학벌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 결혼상담소 직원이 얘기했다. 이것은 학벌이 사람들의 의식에서 신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1. 대학서열화의 역사적 배경

대학서열화 문제는 3.1운동 이후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 장차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를 탐탁치않게 여긴 일제가 이를 가로막기 위해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립했고 해방 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정은 이를 '교육적 쿠데타'로 간주했다. 그와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도 자생적 교육 자치운동, 좌익적. 민족적 성향을 배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립대학설립안'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교육의 본산이었던 경성제국대학에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이 국대안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으나 미군정은 이를 밀어붙여 1946년 9월 1일 오늘날의 서울대학교를 개교하게 된다.

결국 일제가 민립대학 운동을 탄압하고 경성제대를 세운 것처럼 미군정이 민족대학운

동을 탄압하기 위해 세운 것이 서울대학이다. 이렇듯 대한민국과 서울대의 관계는 일제와 경성제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

우리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혼합인 이원적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원체제가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국립대학이 사립대와 구별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컨대 사관학교나 교육대학 등의 특수목적 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 학문이나 특수분야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현재의 국립대학이 국고의 절대적 보조를 받아 운영 되면서 실제로는 사립대학과 거의 차별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립대학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과 사립간의 불공정 경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며 사립대학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간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주장하는 정영섭은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국고보조(국립대 국고보조금 비율 60%, 사립대 1%), 세금혜택, 등록금 덤핑, 국유지 무상불하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경쟁 우위에 있다. 특히 국립 서울대는 수도 소재, 관존민비 등의 영향까지 가세하여 절대적인 시장지배자적 위치에서 독점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현 사회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3.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차별

근래에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지방대학들이 합격생들의 등록률을 높이려 노력을 했지만 성적 상위자들이 모두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가버리면서 심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고 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 편입을 준비하는 등 대학 입학 후 몇 년 간을 입시의 연장선상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도 차별을 받는 등 취업조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근래 수시채용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지방대생들의 분노와 좌절,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지방대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제가 사는 곳은 지방도시 부산이며, 부산권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민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그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나같이, 소위 서울에서 볼 때 아주 관용구가 되어버린 '지방'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마도 평생을 옥죄는 가치개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중심과 중심이 아닌 중심의 들러리, 그저 중심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겉포장 바람막이 정도의 개념이 "지방"인 겁니다. 서울민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서울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에는 엄청난 운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민국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서울민국 치하에서는 그 태어남의 차이가 기회의 대소를 이미 판가름하고 맙니다."

이 지방대학생의 처절한 독백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사실 학벌문제 원인의 절반은 바로 '서울민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서울 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 소외에서 시작된다.

사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의 국립대와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는 거의 대등한

평가선상에 있었지만 그 후 서울 집중화가 계속 되면서 열악한 대학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을 얻어가고 지방 소재 대학은 상대적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문제다.

<학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학교평준화

학벌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연집단이 고체상태로 응고되지 않고 언제나 액체상태에서 유동할 수 있도록 대학들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들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학벌의식은 구성원들의 욕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고, 그 욕구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도 말했다. 그러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권력독점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대학이 공직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공직선발에서 지역별 할당제를 실행해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서울의 명문대들이 공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대학 같은 공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에서도 독점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욕망의 싹을 잘라버릴 때 학벌의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된다. 국가고시의 정원을 주민 인구에 비례해서 각 지역에 할당한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23%가 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의 대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옮겨갈 수 도 있는 것이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분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을 위해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할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대학에 가든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여건을 대등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다.

경쟁은 위에서 말한 교육의 파탄의 주원인이며, 학벌과 시험이 경쟁을 만든다. 즉 학벌을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학벌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들은 학벌이 주는 사회적 자본과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 각 학교간의 서열에 따라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서열의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학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벌의 권력독점을 막고 학교간의 격차를 없애 소수의 학벌의 권력독점을 막으면 학생들이 하나의 대학을 선호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그 대학을 위해서 경쟁할 필요도 없어지며, 자기의 관심과 개인적 사정에 따라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학교 평준화'이며 이것만이 학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평준화를 실행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의 대안들은 『학벌사회』,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1. 인재 지역할당제

– 인재 지역할당제는 국가고시 및 기업의 채용의 합격자 수를 처음부터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일정 비율 이상이 할당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서울에 모여 있으면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서울지역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될 것이며, 지방대학들이 발전할 것이다.

2. 대학들 사이의 문호 개방

– 독일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으며, 개인의 관심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학교 출신이라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학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한국도 대학들 사이의 편입시험 같은 장벽을 없애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대학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해소

–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벌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불균형한 경쟁 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동일한 교육정책, 동일한 지원으로 동일한 경쟁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 핵심은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민영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학의 포화상태에서 대규모 종합 국립대학의 인수 주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독립법인화하여 재정 독립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의 면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주장한다. 대학의 민영화는 대학을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것인데 『학벌사회』에서는 시장에서는 부도덕하지만 합리적인 행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지금에 와서 서울대를 사립대학으로 만든다고 해서 서울대의 지위와 대학끼리의 서열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립대학에게 국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해서 둘 사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4. 입시 없는 대학입학

– 입시는 경쟁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며 경쟁은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경쟁을 유발하는 선발시험에 맞서서 입시제도인 수능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육을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점수로 순위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닌 최소한의 자격을 가리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어려워져선 안 되고, 등수가

아닌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며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 등급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실업계 및 전문교육 기관의 육성

– 앞에서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다. 대학의 본래 목적은 학문의 연구와 전수이지 가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안 해주고, 그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학과들이 개설된 모든 사람이 가야되는 고등교육기관이여선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대학은 학문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실업계 교육과 전문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MEMO

MEMO

MEMO

MEMO

MEMO